가톨릭출판사가 가족회유

힘들고 허기진 마음을 푸짐하게 채우고 다독여 준 **어머니의 밥상 같은** <mark>영혼의 양식, 솔 푸드soul food를</mark> 매달 집에서 받아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 독서가 꼭 필요합니다.

가톨릭출판사 가족^회원이 되어 독서를 통한 영적 성숙도 이루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 보세요!



가톨릭출판사 가족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가톨릭출판사에서 펴내는 신간 도서 대부분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출판사 직영 매장에서 가톨릭출판사 도서와 성물 구입 시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출판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참여 대상이 됩니다.
- 가족회원을 위해 전 직원이 매주 한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한 미사 지향이 있는 경우 알려 주세요.)
- 가족회원을 위한 특별 피정에 초대합니다.

(재)천주교서울가톨릭출판사 무통장 입금 계좌 번호

우리은행 1005-002-464760 신한은행 140-002-292669

국민은행 498101-01-106389 하나은행 209-910004-01204 농협 170778-51-006514

- 후원하신 책은 병원, 군부대, 공소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집니다.
- 신청 및 문의: 전화 02-6365-1867 | 이메일 family@catholicbook.kr 팩스 02-393-8554 | 인터넷 가톨릭서점 http://www.catholicbook.kr

2015년 봄 계간 47호

型处土

인사 회장 인사말 만남 정진석 추기경 · 성심당 인터뷰 휴식 공소의 봄 풍경 이야기 봉헌 생활의 영성 · 심리 상담 • 평신도 연구 • 핫이슈 • 문화영성 산책 나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 M.B.W • 복자들의 영성 배움 인문학 강좌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로마서 특강 • 평신도 양서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그리스도의 평화!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살아내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전국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안녕을 여쭈어 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유난히 무겁게 했던 일도 많았지만 한국 교회는 교황님 방한과 시복식 등 중차대한 행사를 형제자매 모두 한마음 한 몸이 되어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작년과 같은 슬픔과 눈물이 없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기를 하느님께 간청 드려야겠습니다.

'예수 부활 아니시면 구속사업 헛되도다'라는 성가 구절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곱씹어 보고자 '평신도' 봄호의 대주제를 '나의 삶에서 부활'로 정했습니다. 이에 맞갖은 말씀을 본지 제호를 써 주신 '혜화동할아버지' 정진석 추기경께서 자상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평신도 에세이로 서울 불광동성당 전 총회장 최순섭 형제, 언론인 황진선 형제, 서울경제신문 베테랑 기자 정동철 형제, 부산교구 성모울타리 대표 하용수 형제가 각자의 삶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솔직담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달여 전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순 중반에 불과한 저의 은인 박갑순 안나 자매님이 보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며 매우 속상해 하고 계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8년 전 "루카 씨는 성경공부를 하면 교회에 크게 봉사할 재목"이라는 과찬과 함께 바오로딸 통신성서 1년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성경공부를 하도록 이끈 이래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고, 렉시오 디비나 피정으로 인도하시고, 교중미사 후 부군 이승우 베드로 형님과 함께 자주 식사에 초대하시는 등 추억이 참 많은 분이셨지요. 새벽 생미사를 봉헌하고 한달음에 서울성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견진 대자 장남 안드레아가 간병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참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작년 가을 부산교구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때 받은 치유의 십자가를 쥐어 주면서 쾌차의 기적을 주십사 기도드리니 "다시 한번 같이 뛰어 봅시다." 하시던 그분의 눈망울이 그리워 이틀 후 다시 찾았을 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 또다시 찾았지만 서로 두 손을 부여잡을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렇게 그분은 떠나시고 그리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죽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므로 두려움을 주고, 정든 사람과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므로 애달픔을 가져다줍니다. 하느님 없이는 이래저래 인간이란 존재론적으로 슬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참하느님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당신 귀한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며 구원의 빛을 밝히고 계십니다.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먹는 성체, 즉 바로 이 양식으로 바뀝니다. 육적 양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바뀌는 반면, 성체성사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먹는 사람을 당신 자신으로, 당신처럼 변화시켜 부활의 길로 이끄십니다.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전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5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oo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型心系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 나권일 토마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이지연 마리아(가나다 순) **편집장** 김선동 루카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표지 모델

작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 때 서울공항 환영식에서 화동으로 나섰던 최우진 프레데리코(청담중 1학년)와 최승원 카타리나(계성초 3학년) 남매가 봄호 표지 모델로 나섰다.

교황님 방한 당시 승원이가 "환영합니다.", 우진이가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고 교황님께서는 "친절을 베풀어 주어 고맙고 사랑합니다."며 이들을 어루만져 주셨다. 2015년 <mark>봄</mark> 계간 47호

·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궈김중
ഥ시	02	되어 다시크	/ に26

-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 08 정진석 추기경 인터뷰 / 배봉한
 - 12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 신동수
- 휴식 15 공소의 봄 풍경, 황리 공소 / 김연희
 - 7] 16 서상덕 기자의 교회 톺아보기 / 서상덕
 - 20 봉헌 생활의 영성 / 손경옥
 - 22 심리 상담 / 조은영
 - 25 서원만의 만화 세상 / 서원만
 - 26 평신도 연구 / 오용석
 - 28 핫이슈 /신동수
 - 30 엠마오 가는 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 / 최순섭
 - 32 부활하신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우소서 / 황진선
 - 34 어린 아들로부터 얻는 믿음 부활의 교훈 / 정동철
 - 36 아내와 하느님이 주신 완전한 부활 / 하용수
 - 39 문화영성 산책 / 김민수
- 나눔 43 평신도가 뛴다 /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M.B.W)
 - 46 복자들의 영성 / 김길수
- 배움 50 인문학 강좌 / 김문태
 - 53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황인수
 - 5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 60 성화에 얽힌 이야기 / 고종희
 - 63 로마서 특강 / 임숙희
 - 66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용
 - 68 평신도 양서 / 신동수

└└└ 70 교구평협·회원단체

회장 인사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시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태오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예수님의 부활현장을 그려 놓은 구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초래한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영광의 신비'를 기도하는 수요일이나, 주일 나도 모르게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영광의 신비'로 되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바쳐주신 처절한 고통없이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수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피와 땀을 흘리면서 바치신 기도부터 시작된 갖가지 고통들, 그중에서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불가분의 일체'이신데도 성부께서 성자를 분리하고 버리시게 된(버림받으신 예수님) 아픔은 고통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를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모든 조롱과 수난, 고통은 오직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면 매순간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때 내가 아 닌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사랑을 위해 서 무언가를 잃는 그런 고통을 살지 않는다면 부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잡지의 표지모델로 선정돼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주일을 전후해서 멀리서 산을 볼 때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나무색깔입니다. 겨우내 활동을 멈췄다가 봄이 되자 대지로부터 물을 빨아올린 듯, 물기 오른 나무들이 보여 주는 그 색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진결과를 모두 통보받았는데 나만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와 마주 앉은 원장님은 걱정스럽고 심각한 얼굴로 내 표정을 살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과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검사해야겠지만, 간경화가 심각합니다."

나는 그날부터 하느님께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언행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 같은 형제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한 사람씩 사죄했고, 밥 한 끼라도 빚진 것이 생각나면 갚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과 아직 미취학한 막내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다가 내가 아버지를 잃고 외로워했던 긴시기가 떠오르면서 다리에 힘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아이들만 할아버지를 뺏어가셨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내 아이들에게 그것까지 상속시키셔야만 하시겠습니까?"라고 넋두리를 하면서입니다. 그 바람에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본당의 병리검사 전문의를 만나게 되어 지난 번 검사가 디스토마를 간경화로 오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먼 산의 풍경과 색깔이 부활이며,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저는 그 황홀한 색깔의 예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말고도, 꼭 교회력이 말하는 부활주일 말고도 매순간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잃고 혹은 이 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을 죽일 때마다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잃는 그런 고통을 살지 않는다면 부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02 03 평신도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나현식 안드레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사목교서의 실행, 교구장과 평신도를 잇는 가교 역할에 노력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지난 2월 14일,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5년 정기총회가 열린 서울대교구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나현식 광주대교구 평협 회장님(61)을 만날 수 있었다. 미리 보내 드린 질문지에 일일이 답변 글을 써서 주시고, 광주평협이 발간한 책자까지 챙겨와 주신 정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뿌듯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귀한 말씀을 정리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평협의 시작은 1969년 당시 교 구장이신 현 하롤드 대주교님께서 평신 도들도 교구 내 각 신심·사도직단체와 각 본당의 신자단체와의 깊은 유대 및 협력관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식하 고 평신도의 조직을 갖도록 하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준 비를 거쳐 공식적으로는 제6대 교구장 한공렬 대주교님의 회칙 인준을 받아 1972년 2월 27일 '광주대교구 사도연합 회'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탄생됐지 요. 1984년에 지금의 '광주대교구 평신 도사도직혐의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광주평협은 지난 40여 년 동안 임 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교구 평신도들 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을 거듭해 왔 습니다. 현재 131개 본당에 사목협의회 가 설치되어 있고, 교구 단위의 35개 단 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14개 평협이 구성되어 있고요, 교구 단위 35개 단체는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로 구분해 3개 단체 평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구 여성위원회는 위원장이 평협의 부회장을 맡아 상부상조하며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2014년 1월에 광주평협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으로 선임돼 올해로 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 광주평협은 지난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저희 평협 활동은 교구장님의 사목 교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 구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2012년 교구설정 75주년을 맞아 '하나됨의 참 기쁨을 나누는 우리 교구'라는 사목비전을 발표하셨지요. 사목비전과 관련한 중점 사업으로 '공동체성 회복

04



나현식 안드레아 광주평협 회장. 정기총회 날 상경할 때 자료를 준비하는 정성을 보여 주신 나 회장께서 바쁜 와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사진촬영에 응해 주셨다.

과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목교서로 '가정의 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평협은 지난 3년 동안 '가정에서 시작하는 복음화'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봉사하는 가정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가정의 해 실천사례'를 전 교구 평신도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우수작을 평신도대회에서 발표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잊을 수 없는 큰 일들이 있 었잖아요.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 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침몰사고였지요. 4월의 세 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분노를 주었다 면 8월의 교황님 한국방문은 치유와 희망을 주었 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광주평 협은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유가족 들의 임시거처 현장을 방문하고 미사에 참여해 함 께 기도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걸었던 '십자가 도보 순례', '세월호사건 100일 참회와 새로움을 위한 미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팽 목항 미사와 십자가 행진'에 신자들이 동참해 아 픔을 나누었지요. 팽목항 현장에 설치된 천막성당 에서는 지금도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프 란치스코 교황님 방문에 앞서 광주대교구에서는 지난 1984년 광주를 방문하셨던 교황 성 요한 바 오로 2세 기념비 제막식과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 올해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교구장님께서 지난해 말 대림시기를 맞아 새로운 사목교서를 발표하시고 '본당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평협은 '세대별 활성화 및일치를 통한 본당 활성화'라는 주제를 통해 본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특히 매년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하나가 되어 교구의 순교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행사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보성지순례가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달 두 차례 열고 있는 '가톨릭신앙강좌' 특강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사고 1주년을 맞아 광주대 교구에서는 '세월호 1주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 기도와 실천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광주대교구는 지금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면서 교구장님이 강조하신 '공동체성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현직과 평협 회장 일을 겸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없는지요?

저 개인의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일은 다 하느님 사업이 아닙니까! 매번 하느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더군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시간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가끔 하루가 25시간, 아니 한 30시간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에 근무하다 보니 주

요 교구 행사가 있을 때는 시간 할애 니다. 이럼 때는 시간 조정을 하거 나 아니면 우선수위를 정해서 큰 어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 을 항상 채워 주더군요.(웃음)

무엇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구 평협의 임 무는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와 실행지 침들이 교구 평신도들에게 충분히 전 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평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구장님 께 전해 드리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협 회장을 맡 고 나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삶이 바 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의 눈을 교구 일에 좀 더 많이 할애하려고 노 력합니다. 일을 할 때도 개인적. 주 관적 생각보다는 공동체적, 객관적 인 상식의 선에서 처리하고자 노력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주위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엇 보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 라는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나서 하느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에 대한 고민에 빠질 때가 가끔 생깁 려움 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또 교회 까! 함께하는 동료들이 저의 부족함

★ 평협 회장을 맡으신 뒤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신 것은

♦₺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가 지게 되셨는지요?

저는 서른 삼 전에는 신앙에 대 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정도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즈음인 1983년 여름 어느 날 아내가 성당에 다녀 보 겠다고 했을 때 반대는 하지 않았습 니다. 아마 그날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었나 봅니다. 성당을 다녀온 아내 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다음 주에 는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의 간 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 했지요. 우리 부부는 서울 잠실본당 에서 6개월간 예비신자 교리를 받은 다음 1984년 2월 26일에 세례를 받 고 주님의 자녀로서 안드레아와 제 노비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해 5월 6일에는 서울 여의도광장(지금 은 사라진)에서 거행된 '한국 천주교 회 200주년 기념식과 한국 103위 순 교자 시성식'에 참석해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미 사에 함께하는 영광까지 얻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당에 가자고 부 탁(?)했던 아내 제노비아의 현명한 제안을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 다. (웃음)

❖ 앞서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 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체험이 있 으신 듯합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 3년이 지나도 2세 소식이 없었어요. 각각 5남매의 장남. 6남매의 장녀인지라 양가 부모 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기다림이 간



광주평협이 지난해 10월 q일 진행한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에 갈수록 참여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절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저희는 모든 것을 주님 께 의탁하기로 했지요. 당시 신앙이 없었다면 견 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본당 신 자들의 기도가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 지요. 드디어 하느님께서 1986년 7월 14일에 기다 리고 기다리던 귀한 아이 브리짓다를 선물로 주셨 습니다. 결혼하고 4년 2개월 만이었지요. 그 뒤로 하느님께서는 아녜스, 데레사, 스테파노 세 아이 를 더 주셨어요. 우리 부부 호칭이 '애 없는 부부' 에서 '애 많은 부부'로 바뀌었습니다.(웃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넘치게 받은 것이죠.

2001년에는 제가 갑자기 신장암 판정을 받았 습니다. 제 혈액형이 희귀한 RH-O형이고. 제가 마취에 대한 쇼크가 있습니다. 5시간 대수술을 앞 두고 두려움이 엄습하더군요. 주님께 "주님, 저를 조금이라도 쓰시고자 하신다면 제게 생명을 이어 주십시오." 이런 협박성(?)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은 저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살 려 주셨어요. 주님은 쓸모없게 된 제 콩팥 하나를

가져 가셨지만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덤으 로 주셨지요. 그 뒤로 저는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신 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본당 사목회 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저 의 신앙생활에 불씨를 지핀 기회는 사실 따로 있 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꾸르실료 봉사자 로 활동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배워 나가게 됐습니 다. 지금도 꾸르실료는 저의 신앙의 텃밭이라 생 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의 활동을 봉사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가 감히 남을 받 들고(奉) 섬기는(仕) 봉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말씀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요한 5.30)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 다.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늘 묵묵히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



주님이

부르시면 늘

묵묵히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제게

길을 걸어갈

원하시는

뿐입니다

광주평협은 매년 평협 회지 를 발간해 활동사항을 회원 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17호를 발행했다.

정진석 추기경 인터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대담 · 정리 **배봉하** 편집위워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85세)을 2월 26일 서울 혜화동 가톨릭신학대학교 내 주교관에서 만났다. 정 추기경은 1961년 3월 18일 사제로 수품, 1970년 10월 3일 주교품을 받고 청주교구장으로 사목하다 1998년 6월 29일 서울대교구장이 되었다. 2006년 2월 22일 추기경으로 임명, 3월 24일 서임되었다. 2012년 5월 10일 은퇴하여 혜화동 주교관에서 살고 있다.

하느님이 저한테 과분한 은총을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날마다 건강하게 눈뜨게 해 주시고 글을 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총이죠. 이 근래에는 겨울나무에서 하루가 다르게 싹이 트고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며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감사와 기쁨을 느끼면서 사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제가 되면서 바쁘다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바빠서 그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윗분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 항상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겸직을 꽤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 겹치더라도 바빠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은퇴를 하면 시간 여유가 있을까 했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깨어나 있는 시간에는 일거리가 항상 있어요. 한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 시간이 지루하다는 표현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신문을 조금 보고 텔레비전은 아주 조금, 아마 텔레비전이 섭섭해 할 거예요. (웃음) 물러나 있으면 세상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현직에 있을 때는 알아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봤지만, 은퇴한 뒤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얽매이는 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08

교황님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교황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복음화에 기초가 될 나라로 일본을 꼽아왔어요. 그래서 20세기 초기까지 유럽도 교황청도 일본의 복음화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줄어들었죠. 특별히 교황청에서 볼 때 아시아 복음화의 기초요 거점이 될 곳으로 여겼던 일본에 대한 평가가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되신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교황님이 이번에 아시아 순방의 첫 나라로 한국을 택하신 것은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상 교황님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가신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먼저 오시고 다음에 필리핀에 가셨잖아요. 이것은 교황청의 큰 사인(sign)이에요. 한국이 적어도 다른 국가보다 아시아 복음화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들어야죠. 다행히 우리나라에 외 방선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데, 이것이 교황님의 뜻에 맞을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르바노는 인류복음화성의 직할 대학교로 제3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인재 양성 기관인데, 저한테 무슨 강연을 해 달라고 해서 아시아 복음화에 대한 한 단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추기 경으로 임명되던 해였어요. 그때에 아시아 복음화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말을 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강연을 듣던 사람들이 한국이 아시아 복음화에 전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궁금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구가 많지 않을 거예요. 라디오 베리타스가 필리핀에 있는데 마닐라 교구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서울교구에는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어요. 바티칸 라디오에서 는 아시아를 위해서 한국의 평화방송이 카운트 파트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 제안에 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죠.

서울교구에는 평화방송이 아주 힘겨운 짐이에요. (웃음) 그런데도 힘겹게 기를 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아시아니까 너희가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적인 면은 도와줄 테니 너희가 해 보라고 제가 있을때부터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못 했어요. 그게 미결된 상태에서 저는 떠난 거지요. 서울교구에서 그 막대한 비용을 댈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아쉽지만 못하고 떠난 거지요. 지금도 라디오 바티칸에서는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어요.

교황님이 이번에 꽃동네 가신 것은 큰 사인이에요. 교황님은 빈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도 교황님 뜻에 공감하는 게, 우리가지금 3만 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해방될 때도 빈곤층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이

역사상 교황님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가신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먼저 오시고 다음에 필리핀에 가셨잖아요.

이것은 교황청의 큰 사인 (sign)이에요. 한국이 적어도 다른 국가보다 아시아 복음화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들어야죠.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는 이 세상에서 빈곤한 사람이, 굶어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이 큰 모순이에요. 렇게 격차가 크지는 않았어요. 1천 달러도 안 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왜 더격차가 크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잉생산에 과잉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쓸만한 자동차를 두고 새 자동차를 사고. 휴대폰도 2년만 쓰도록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멀쩡한 걸 놔두고 자꾸 바꾸고. 이렇게 과잉생산에 과잉소비를 하려다 보니 광고가 요란스럽게 나오죠. 불필요한 것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작 생존에 아주필요한 것이 모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큰 모수이죠.

이전에 산업사회가 되면 대량생산을 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잉산업사회가 되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큰 부자들은 평생 다 못 쓸 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든지 뭐든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롭게 분배를 하면 극빈층은 없어지겠지요.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는 이 세상에서 빈곤한 사람이, 굶어죽는 사람이 왜이렇게 많으냐? 그것이 큰 모수이에요.

제가 오늘 배 선생님 만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좌파라고 하니까. (웃음) 제가 이야기한 이 세상의 모순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빈곤의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어서 배고픈 사람 먹여 주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게 해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공심판 때도 네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느냐며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2천 년전의 그 가난이 오늘날에도 극빈자에게는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 극빈 자가 있다는 것은 분배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분배정의를 간접 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웃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데, 그 게 나누라는 거죠. 서로 나누면 모자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제 사순절 묵상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건데, 예수님이 오늘날 사셨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는 중이죠. (웃음)

예수님의 일생에서 클라이막스가 성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압축한 게 성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일 생을 쓰는 작업은 너무 방대하고 압축 된 이 부분만이라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 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국말로 된 책이 있나 했더니 없대요. 전례서와 기도문은 있지만 한국말로 출판된 스토리로 된 책 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라도 있어야지 해서 이번에 「성주간」 책을 썼어요.

해방되고 좌우익이 극단적으로 대립했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종북좌파라는 말이 없고 공산당인데, 공산당의 이론인 유물론이 퍼졌어요. 유물론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제가 휘둘렀어요. 몸은 성당에 다니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성당에 가면 하느님이 계신 거 같고. 그래서 1년을 헤맨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가 안 계신가 부인도 안 하고 확신도 못하고.

10

그런데 윤형중 신부님이 종교의 근본 문제 강론을 하신 거예요. 사순절 여섯 주 간 동안에, 하느님이 계시느냐. 영혼이 있 느냐, 두 가지 주제를 해명하신 거예요. 하 느님이 계시다, 영혼은 있고 안 죽는다, 사 순절 강론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제 신앙이 굳어진 거죠. 윤형중 신부님의 「종교의 근 본 문제」, 그 책을 제가 현대에 맞게 쓴 게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인데, 이 책 끝에 앞서 말한 사연을 썼습니다. 제가 헤 맸던 것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 주고 싶어 쓴 거지요.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적은 많았는데, 힘들었다는 건 자각을 못해요.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 할 때 힘들 텐데,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거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느님 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너 혼 좀 나 봐라 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어려움을 당 하는 것도 하느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라 고 생각해요. 다 은혜로웠어요. 억울하다 고 생각했으면 힘들었겠죠.

부활신앙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이 하느님 품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본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보상이 되고 창조하신 그 본뜻이 복구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뜻대로 하느님 품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정 추기경을 오랫동안 모셔온 정 알비나 수녀가, 정 추기경이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하루 일과가 똑 같아 놀라웠다고 인터뷰를 거들었다. 새벽 5시에 기 상, 기도, 집필, 미사, 식사, 접견, 집필, 산책, 기도, 집필. 정 추기경의 하루 일과도 알려 준다. 성품이 착 해 환호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나 총리를 대할 때나, 청소부나 사무원을 대할 때나 똑같다는 말 도 덧붙였다.

강복을 받고 혜화동 주교관을 나섰다. '정진석 추기경 은 온건 좌파였다?' 이러면 일간지들이 다투어 기사 를 쓰지 않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 보면서, 추기 경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웃으며 하신 말씀을 약속 대로 가감 없이 전해 본다.

"제가 극단적인 좌파는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 그이들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부자 것을 뺏어서 분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투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잖아요. 무직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무직자에게 부자가 직업을 주면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러나 뺏는 건 안 되지요! (웃음)"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성심당

대담 ·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본란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선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기업으로 대전교구 '성심당'을 선정하고 임영진 대표를 이메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빵을 나르며 임영진 대표가 활짝 웃고 있다. 그는 창립자이신 고 임길순 회장을 이은 2세 경영인이다.

❖ 성심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창업주이신 故 임길순 회장은 가족을 데리고 1950년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창업주께선 배에 타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신부님의 레지오 마리에 깃발을 들고 신자들과 함께 승선하면서 살아서 도착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의 작은 찐빵집으로 아주 초라하게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예수성심에 대한 공경심이 남달랐던 임 회장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닮아가고자 거룩할 聖, 마음 心이라는 뜻을 담아 '聖心堂'이라는 상호를 짓고 가족의 끼니도 잇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대전역 앞의 굶은 이에게 찐빵을 나눠 주며 하느님께 드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을 통해 인 간을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버리는 문화에 대해 경 계하고 계십니다. 성심당은 어떤 기업 철학으로 일 하는 곳인가요?

성심당은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착하게 운영하던 중 포콜라레운동을 통해 알게 된 공유경제기업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기업으로서 단지 선의의 뜻만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타주의적 삶을 빵집안에서 이루어 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빵집 안에서 빵을 통해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념을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 본으로 성심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제과시장의 트랜드 안에

12







2000년 성심당

서 지방의 빵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심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그길이 무엇인지 방향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회사의 사훈인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 흔히 서비스업에서 고객만이 제일이고 우선인 것에서 동등한 존엄성으로모두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모든 이란 남녀노소, 가난한 이, 부자, 협력업체, 직원, 고객, 경영주 모두를 말합니다. 회사 안에서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문화가점차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라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백 배의 상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구체적 인 방법으로 회사 안에서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곱 가지 색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강 - 투명경영을 통해 올바른 재화활용

주황 - 빵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

노랑 - 법률과 윤리기준을 준수한 정직성

초록 – 정직한 재료와 존엄성을 지닌 건강한 제품

파랑 -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과 같은 빵집

남색 -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 되기

보라 - 생각의 일치와 소통으로 한가족 되기

특히 올해에는 동료 간 서로 간의 사랑을 살기 위해 진급 제1조건을 사랑의 챔피언이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매출 증대 등 다른 실적보다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주의 철학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라는 점에 착안해 직원의 행복은 물론소외된 이웃에 대한 기업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성심당은 어떤 기업인가요?

성심당은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시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입니다. 로쏘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5개 제과매장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5개 외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312명과 파트타임 9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에게는 성심당은 단순한 빵집 이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추억과 공감의 장소이기 도 합니다. 대전이라는 로컬리티를 통해 대전시민 의 자부심과 문화가 되고자 합니다.

내년 창업 60주년을 준비하며 도시에 봉사하는 기업의 몫에 대한 사명감을 많이 느낍니다. 언젠가 성심당의 비전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빵이라는 도구를 통해 모든 이가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고자 하며. 그 안에서 서로

가 이룬 사랑의 문화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 주최 일터혁신경진대회에서 우리 회사의 사례는 중소기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성심당과 빵이 매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교황님께 성심당 빵을 드릴 수 있었던 2014년 8월은 아마 잊지 못할 성심당 역사의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께서 교황님께 드릴 빵과 케이크를 보러 오셨어요. 우리는 종일 제품을 맛보았어요. 처음엔 우리보다 더 맛있는 빵집들이 서울에도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부담도 되었어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치친정아버님께 시집간 딸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마르타의 몫을 하게 됨이 벅차오르기시작했어요.

또 대전가톨릭대학에서 교황님의 식탁준비를 함께 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침 성심당에서 근 무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교황님의 식사준비에 함 께 하게 되어, 가까이서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영 광을 얻게 되었답니다. 또 바티칸으로 돌아가실 때 교황청의 직원들에게 선물하실 초코렛을 준비 해 드렸는데 교황님께서 100유로를 주시고 가셨 어요. 지금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성심당 빵을 드셨다는 방송매체 를 통해 들은 시민들은 교황님이 드신 빵을 찾아 한동안 매장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 성심당의 역사 속에서 자부하는 가장 대표적 인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튀김소보로(빵의 혁명)

1980년 5월 곰보빵이라 일컫는 소보로와 앙 꼬빵을 비롯해 몇 종류의 빵이 없던 시절, 뭔가 획 기적인 빵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누구나 좋아하



튀김소보로

는 곰보빵을 튀기면 어떤 맛이 날까? 게다가 앙꼬를 넣으면? 이렇게 하여 탄생한 튀.소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점포 밖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맛을 볼 수 있는 성심당 대표 상품이 되었습니다.

생크림케이크

1985년 탄생한 옛날 생크림케이크는 전국 최 초로 개발하여 전국에 생크림케이크의 열풍을 불 러 일으켰습니다.

판타롱부추빵

1986년 우리엄마 학창시절 판타롱 입고 친구들과 통기타 치며 즐겨먹던 부추빵은 싱싱한 부추에 계란, 햄으로 담백하고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매력만점 빵으로 튀김소보로와 함께 성심당의 대표빵이 되었습니다.

대전부르스떡

정직한 재료, 정직한 떡 대전 부르스떡은 100% 국산 통팥, 국산 찹쌀에 호두를 듬뿍 넣어 대전의 정서와 성심당의 마음을 담은 대전의 대표 전통과자가 되었습니다. ፟፟፟፟

휴식

공소의 봄 풍경, 황리 공소

촬영 · 기록 **김연희 세라피나**



황리 공소는 경남 고성과 통영 사이의 천개산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1989년도에는 91세대 423명의 교우가 있었다. 규모면에서 큰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30세대 90여 명이 살고 있다.

1930년대 전라도 지역을 장사다니며 천주교에 눈을 뜬 이석오 루카와 지역유지 홍종모 데오필로 두분이 일찍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교유하면서 1834년 설립되었다. 1935년 황리본당으로 승격되어 마산교 구 순교자 신석복 마르꾸의 손자 신순균 바오로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1년 4개월 재임하였다.

1939년 기월리 공소가 고성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고성본당 황리 공소로 격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7년 프랑스 신부 우도 신부님의 황리에는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보고서가 공소를 알렸고, 1987년 초가공소로 시작하여 1897년 양철기와집으로 단장 완공되었으며, 당시 이 일대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건물로서 위용을 떨쳤었다. 지난 130년 동안 공소신자들의 자녀들 중에 10명 이상의 신부님과 수도자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고성본당 신부님과 창원복지관 신부님이 매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이어져온 10여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카테나를 바치며 공소를 잘 가꾸고 있다.

황리 공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임외길 100 고성 성당: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2 공소 관리자: 이창길 요셉 회장 011-9334-3691 사무실: 055-673-5301

서상덕 기자의 교회 톺아보기

평신도와 사회참여

서상덕 편집위원

교회가 제대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딛고 서 있는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요구와 복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복음적 가치를 사회 안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프란치스코 효과'를 몰고 다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한국을 다녀 간 후 신자들에게 '교황 방한 중 가장 인상적이었 던 장면'을 물었다.

응답한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51.9%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월호 유가족 위로'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소장 강우일 주교)가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한국 천주교회 과제에 대한 조사'는 그리스도인, 특히 세상 속에 서 살아가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 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자들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복음의 기쁨을 사는 교회,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교회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중 행한 연설과 강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으로 꼽은 것도 '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발언으로 알려진 로마행 기내 기자회견(51.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부유하게 사는 수도자들의 삶이교회에 상처를 입힌다.'는 내용의 수도자들을 향한 연설이 꼽혔다.

성속이원론과 한국교회

한국교회 밑바닥에 깊숙이 깔려 있는 시각에 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닷새 남짓한 기간에 던져 주고 간 이러한 떨림과 감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두고 분명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교회가지닌 독특한 문화와 풍토에 깊숙이 젖어 살아온신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신자들에게 교회는 세상과는 떨어져

서 있는 어떤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황이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 교묘 한 꼬드김에 빠져서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 주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이러한 반향은 한국교회, 나아가 교회가 딛고 서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 온 인식이나 삶의 방식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불안과 동요는, 그만큼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해 온 성속이원론(聖俗二元論)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송창현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성속 이원론이 지배해 온 과거의 교회는 세상이나 사회 를 외면하고 교회만이 완전사회이며 선(善)을 독 점한다고 생각해 왔다. 성속이원론에 기초한 정교 분리(政教分離)는 세속과의 단절을 강조함으로써 신앙과 교회가 사회 현실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고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통해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성속이원론에 빠지면 사회문제에 대 한 예언직(豫言職)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멀어 지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인간의 자유, 인 간 존엄성, 인간 해방 등 보편적인 가치는 외면하 게 되고, 오히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단죄(斷 罪)하는 경향까지 보이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홍규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원론적 사고와 싸워 왔다. 이원론적 사고에서 이단과 그 아류들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성속이원론은 이미 교회가 이단의 원천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고 말하다.

정교분리로 현실화되는 성속이원론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수행하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비판받아 왔다.

실제 성경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만 봐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톺아볼 수 있다. 예수님의 활동은 당대 지배층이나 기득권층에 매우 위협적으로 여겨졌을 만큼 정치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써 붙여진 죄목 푯말'TNRI'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당시 총독 빌라도의명령으로 붙인 이 푯말은 '유다인의 왕 나자렛의예수'(Jesus Nazarenus Rex Judaeorum)(요한19,19)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교도의 행정관이나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글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이유로 수난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까운 우리 역사만 봐도, 성속이원론은 교회 로 하여금 가난하고 핍박 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체제와

16 17 평신도

공존하는 길에 서게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 제강점기 때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교분리 원칙을 선교 방침으로 하는 국가관을 형성하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관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교회안팎에 오래도록 남아 왔다. 이 때문에 남북분단, 6.25전쟁,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등 격변하는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복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방기해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회의 본질과 사회 참여

가톨릭교회는 본질상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13-16)이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던지고 썩지 않도록 일깨움으로써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곳으로 일궈 가기 위하여 존재한다. 특히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마태 25,31-40)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 난한 이들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 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 장, 1항)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오히려 세상과 무수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과발전을 위해서도 세상과의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속한 민족의 역사 안에서 사회적 역사적 주체이면서 객체로존재하면서 그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통계와 자료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자 개개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문제 개입에 불편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속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자선행위로의 도피, 개인적 영성운동 등만을 추구하게 만듦으로써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인 부분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을 낳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과 무 관하게 지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어렵지 않 게 알 수 있다. 오히려 세속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 함으로써 '정교분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을 정 도로 교회는 세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 어 왔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던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다. 교회가 제대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는 교회가 딛고 서 있는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리고 그러한 사회의 요구와 복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적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 탕으로 복음적 가치를 사회 안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에서 '젊은이들이 신체 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계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 록 육성되어야 한다'(제795조)고 가르친다. 여기서 강조될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참여란 인간이 자발

18

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 교류에 투신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는 것'(1913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들은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1915항)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는 개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일례로 인간은 자기 가족의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타인과 사회의 선역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14항 참조)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에는 모든 도덕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회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 법의 구속과 사회적 의무의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여러 가지 다른 기만적 술책들은 정의의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1916항)

이처럼 사회 참여는 복음회를 위한 모든 그리 스도인들의 의무다.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 치에 있는 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두 는 가치와 그들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북돋워 주 는 가치를 확립해 나가야 할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다.(1917항 참조)

사회 참여, 사회생활에 대한 봉사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 안에서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다. 동시에 사회생활에 대한 교회의 봉사를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

평신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 자신의 일이나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그리스도 의 왕직'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낸다.(『간추린 사회 교리, 551항 참조).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평신도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봉사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한다. 인간에 대한 봉사, 문화에 대한 봉사, 경제에 대한 봉사, 정치에 대한 봉사다.

평신도들은 인류 가족을 섬기도록 불림 받은 이러한 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도 록 부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게 된다.(『간추 린 사회교리』 552~553항 참조)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한 봉사인 평신도의 정치 참여는 하느님의 정의 추구로 드러난다.

평신도의 사회생활 영역에 대한 봉사는 평신 도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인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이러한 봉사 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구성원으 로서 평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현 실 세계 안에 구체화하는 표징적인 삶을 살고 있 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 력은 단순히 제도 교회의 교계제도를 통해서나 일 부 성직자 중심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러한 노력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





봉헌 생활의 영성

봉헌 생활의 해를 맞아 성 베네딕토회 봉헌회원의 삶을 노래하며

손경옥 젤드루다 성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워 봉헌회 왜관 1기

'이치에 맞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봉헌자답게 살아가는 평신도로서 모두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그 수의를 늘 입고 사는 분들이 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갈망하여 그 삶이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마땅한 성 베네딕토회의 부현회(Oblati) 회원들도 월 모임에서 봉헌복을 입으며 그 옷은 곧 수의이다. 우리들은 성 베네딕토회의 영적인 여정에 함께하려는 열망으로 봉헌회원으로 살기를 결심하였고, 종신봉헌을 한 사람들이다.

성 베네딕토 왜관수도원을 들어설 때마다 대문 안의 공기가 다름을 느끼곤 한다. 수도원 대성전을 들어서기 전엔 '문간'에서부터 이 '정적'을 만난다. 괴테가 말했다는 '산의 정적'이며, 이육사가 '계절의 오행'에서 말한 '정일'이다.

성 그레고리오 대종이 그의 저서 〈대화〉에서 말씀하신 '침묵의 영성'이 빛나는 순간이다. 그는 수도자들을 위하여 슬기로운 절제와 명쾌한 표현의 규칙서를 저술하여, 그가 교사로서 실행했던 모든 활동을 재인식하게 해 주었다.

성 베네딕토는 5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



누르시아(Nursia)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공부 를 하다가 수비야코(Subiaco) 골짜기에서 은수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제자들이 몰려와 수 도원을 세우고 이름난 수도원장이 되었다. 나중 에 수도원을 로마 남쪽 150km 지점의 몬테카시 노(Montecasino) 산꼭대기로 옮겼다. 성 베네딕 토의 제자들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발전과 쇄신 을 거듭하며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베네딕 토의 제자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1909년 한 국에 진출한 독일 오틸리엔 연합회의 성 베네딕토 백동수도원은 원산, 연길을 거쳐 오늘날엔 왜관수 도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한 수도생활을 하고 있 다. 지난해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때맞추어 서울의 역사박물관에서 '동소문 서소문별곡'이란 특집으로 100년의 발자취를 일반인들에게까지 공 개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 리기도 하였다.

〈성 베네딕토 규칙서〉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들아, 들어라, 말해 줄 것이 있다. 너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만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거든, 네 혀는 악을 피하고, 네 입술은 거짓된 말들을 삼가라. 사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나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침묵'을 강조하면서도 '말하기가 허락된' 문간 담당 수사의 소임을 생각 한다.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이고(규칙서 53) 환대하라.'는 권고의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 는 성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뜬 '착한 일의 도구' 라는 개념과 함께 '하느님의 계명을 매일 행동으로 채워라.'라는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같다고 본다.

사려 깊은 세심함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르치시려 애쓰는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의 수도여정에서 영적인 자산을 공유하려 노력하는 봉헌회원들은 매년 발행되는 〈수도승 전례지침(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의 "모든 수도형제들과 봉헌회 회원들은 베네딕토회 고유수도승 전례력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며, 언제라도 마음과 목소리가 조화되도록 마음 정화에 힘쓰시는 분들을 본받으려 노력을 한다. 또한 "시간전례속에 하느님의일에 관한 베네딕토회의 고유한 영성과 신학과 지침이잘 담겨 있음"을 알기에오늘도 시간을 맞추려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수도영성의 가장 고유한 영성인 '하느 님과의 대화와 관상의 영성'과 '친교의 영성'을 배 우며 미력하나마 가능하면 함께함으로써 그레고 리오성가와 안티포날레의 선율이 풍성한 은사를 타고 더 널리 퍼져 나가게 노력한다. 봉헌회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수도원 순례를 통하여 독일의 성 오 틸리엔 수도원에서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 성 안 셀모수도원까지 손님이 되어 방문하기도 한다. 또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봉헌자대회의 세미나에 참 석하여 각 수도원의 대표회원들과 살아있는 영적 교류를 나누기도 한다.

봉헌회원 중에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고 노래하신 구상 시인이 특별회원이셨으며, 지난 2월 하느님께로 돌아가신 "바다에 누워"의 작사, 작곡가인 장인식(세례자 요한-10기),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생명 평화이시며 / 기도로 이룬 사랑 / 봉헌회 형제자매 / 하느님의 뜻 따라 영원토록 살리라"고 노래하던 박해수(프란치스코-9기)도회원이셨다. 전국의 많은 기차역과 대구 시내 지하철역에 그의 시가 있어 간이역 시인이란 이름도가진 장인식 시인이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월모임에서 늘 환하게 웃는 모습은 지금도 수도원 문간에 들어서면 다시 만날 듯 생생하다.

많은 회원들이 '성무일도를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한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된 것이 너무 나 좋다고 하는 봉헌회원들은 수도원의 장례와 종 신서원 잔치에서 손님접대의 한몫을 하며 하느님 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늘 생각한다. 10여 년이 흐 르는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또 모여 온다. '정주'라는 베네딕토회의 영성에 '뿌리내리 기'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반성하며 기 도 보탬에 충실하도록 자신을 성찰해 본다.

성무일도를 원래대로 잘 바치려는 성 베네딕 토회의 봉헌회원인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봉헌생 활의 해를 맞아 성 베네딕토가 강조한 '이치에 맞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봉헌자답게 살아가 는 평신도로서 모두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는 왜관수도원 박현 동 불라시오 아빠스와 모든 수도자들과 전 세계 모든 베네딕토회원들, 또 그들이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기도한다. ፟፟፟

20 21 평신도

심리 상담

잃어버린 어린 시절

조은영 히야친따 영성심리상담전문가

누구에게나 자신이 깊게 관여한 과거가 있다. 이 과거는 자신을 성장시킨 힘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별해야 할 때 이별하지 못하면 그 과거가 자신의 현재를 또미래를 삼켜버릴 수 있다.



지난 호에서 부부 간의 소통이 그렇게나 엇갈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정당하지만 상대에게는 정말 어 이없는 배경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 배경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A씨는 사회생활 도 열심히 하고 성당활동도 열심히 한다. 잠시도 쉬 지 않고 일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앞장서 서 한다. 물론 가정생활도 잘하는 것 같다. A씨름 아 는 사람들은 A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고. 그렇다면 A씨는 매 우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상담실을 찾은 A씨는 허무감과 우울감 및 불안을 호소했으며 자신이 누구인 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이야기했다. 물론 사회생활. 성당활동 및 가정생활 모두 열심히 살고 있으며 그러 한 삶이 자신에게 보람도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 만 A씨는 자신의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 초조함, 무가치함으로 묘사하였다.

A씨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려서 부모님이 몹 시 싸웠다. 심지어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 리기도 했다. 어느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름 피해 어딘 가로 도망갔다 오기도 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어 머니는 이혼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 은 마음까지 가진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특히 마음이 착하고 여린 A씨에게 "내가 너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 다." "너 때문에 산다." 등의 말을 하며 A씨는 그런 어 머니에게 희망을 주면서 위기를 견뎌냈다. 형제 중에 유독 여리고 착한 A씨는 어머니가 우울할 때마다 힘 이 되어 주는 매우 착한 아들이었다. A씨는 성실했으 며 어머니에게 따뜻한 효자였다. 이러한 특성은 학교 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A씨는 더욱더 열심 히 살았다. 공감능력도 높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A씨를 아는 많은 사람 들은 그를 칭찬했고 그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러워했 다. 단, 본인과 부인은 예외였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없었다. A씨는 본인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 혹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엄마를 살려야 했고 엄마가 살아야 자신이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특히 엄마를 돌보는 아이로 자랐던 것이다.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철이 든 모습이고 기특한 행동이다.

대체 A씨가 최선을 다해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A씨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린 마음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의 폭력과 싸워야했고, 공포와 대면해야 했다. 자신과 엄마의 안전과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자신의 욕구를 억압해야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A씨의 행동은 칭찬과 인정을 끌어냈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A씨의 어머니도 이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가치감을 갖고 살아왔다. 즉 A씨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살리기 위해 엄마를 지켜낸 빨리 성장한 성인아이였던 것이다.

아이는 적어도 어린 시절 일정 기간 (학자들은 만 3세까지가 중요하다고 한 다.)은 절대자적인 존재로 있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만 달콤한 시기일 것이다. 우유가 맘 에 안 들면 뱉어내고. 이유식도 먹다가 토해내고, 불편하거나 춥거나 아프면 울 고. 똥 싸고 오줌 싸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한 시기는 그 리 오래 가지 않는다. 아이는 서서히 엄 마 젖가슴과 이별하고 상대적으로 거친 이유식을 숟가락을 사용해 먹어야 하며. 엄마 품에 안기기보다 자기의 두 발로 서야 하고, 똥오줌을 가리기 위해 괄약 근을 조절하고 기저귀와 이별해야 한다. 게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이 독차 지했던 사랑을 동생에게 나눠 주기까지 해야 한다. 아이에게는 정말 쓰디쓴 경 험일 것이다. 성숙은 어쩌면 이와 같은 달콤한 시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내 중심 적인 세계와 하나씩 이별해 나가는 과정 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새로운 발달과제 는 그러나 적절히 아이에게는 도전적이 고 성공경험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재미 가 있어. 과거 내 맘대로 했던 유아기 경 험을 대신하기에, 아이들은 세상을 그렇 게 두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경험한다.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는 매우 짧

영·유아기에 엄마는 자기 맘대로 학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자신의 무자비한 욕구를 하나씩 세상에 맞추며 조절해 나 갈 때 경험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 리고 좌절감을 함께 경험해 주며 지지 해 주고 심지어 내적 힘이 되어 주는 역 할을 한다. 이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 하다면 아이가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적절히 받아주며 적절한 좌절감을 경험 하게 하고 일관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경 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우울하 고 절망스러운 엄마는 자신의 고통이 너 무 커서 아이의 요구, 불안, 공포와 함께 성숙은 어쩌면 이와 같은 달콤한 시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내 중심적인 세계와 하나씩 이별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22 23 평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아이가 엄마의 기분에 맞춰주 도록 조절된다. 이렇게 조절된 아이는 자신의 욕구 를 알아차리기보다 타인의 욕구 및 감정을 먼저 알 아차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는 사람으 로 성장한다. 세상은 이런 아이에게 또 칭찬을 해 주어 더욱 더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의 균형감각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맞춰진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채 갑자기 커 버린 성인아이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A씨는 성인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의 기회도 없이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돼야 했던 A씨 는 존재감을 찾기 위해 항상 자신을 움직였으며,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는 일 을 통해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했고 주변에서 힘든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더 불안하여 어느새 가서 도 와주어야 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보람도 느꼈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기쁨도 있었다. 이제 중년기가 된 A씨는 정작 부인과 가족에게는 짜증을 부리고 피곤해했다. 효자인 A씨는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어 자신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인과 자식과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해 드려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부인은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A씨 본인도 갑자기 억울하고, 울컥하고 허무한 감정들을 자주 접촉했다. 이는 오랫동안 참 자기를 소외시키고 역할로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무의식적 안타까움과 서러움일 것이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주 어린 시절로 퇴행하였다. 남 눈치 안 보고 먹고 싶고, 동생에게 양보안 하고 싶고,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나서 나에게

와서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좀 알아서 살아 줬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잘 돌보고 그래서 나의 잠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이야기했다. 그러한 욕구를 말하는 아이와 만났을 때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지하실에 외롭게 앉아 있는 아직 크지 않은 어린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의 유아기적 욕구를 만난 A씨는 계속되는 자신의 욕구를 비난하지 않고, 타인의 욕구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적이고 자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작업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행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 패턴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나아가 외상(trauma, 심리적 상처)에 의해 엮여져 있던 원가족과의 심리적 고리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벗어나 이젠 자신의 가족을 볼수 있게 되었고 부인이 경험했을 외로움을 깊이 공감하기도 했다. 부인은 공감 받는 만큼 눈물을 흘렸고 이해받는 느낌에 스스로 과거와 이별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깊게 관여한 과거가 있다. 이 과거는 자신을 성장시킨 힘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별해야 할 때 이별하지 못하면 그 과거가 자신의 현재를 또 미래를 삼켜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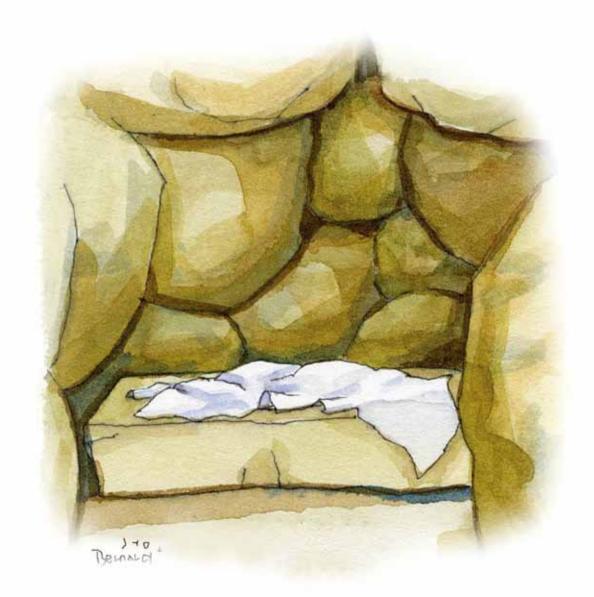
겨울과 이별하고 새 순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나의 과거와 이별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가능성의나를 발견하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잃어버린 나의 어린 시절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서원만의 만화 세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서원만 벨라도 대구대교구 상인동성당 · 대구가톨릭미술인회 부회장



24 25 평신도



평신도 연구

평신도의 사회사도직과 그 연구 소명 왜 중요한가?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사회사도직연구소장

교령은 사도직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사도직을 평신도들의 선택이 아니라 고유한 필수적 사명으로 천명하고 있다.



사회사도직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평신도」지 이번 호부터 '연구소 코너'가 생기는 것을 계기로 평신도의 사회사도직과 그 연구 소명의 중요성에 관해 먼저 짚고 가려고 한다. 이로써 앞의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충족되리라 본다.

현대 교회의 사회사도직과 관련된 가르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볼 수 있다. 「평신도 교령」은 사도직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 '사회분야의 사도직'(13항) 즉, 사회사도직을 언급한다. 교령의 '사회 환경'에서 다루어지는 사회사도직의 범위는 평신도 사도직 전체를 아우를 만큼 매우광범하다. 교령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도

직은 평신도들이 가정, 사회, 직업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야 하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이라면 영신적이든 현세적이든 하나도 빼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령은 이 사도직을 "다 른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의 의 무이며 책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사도직을 평신도들의 선택이 아니라 고유한 필수적 사명으로 처명하고 있다.

「평신도 교령」의 가르침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평신도들은 삶의 증거를 말씀의 증언으로 완성한다."는 명제 아래 사회사도 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바로 그활동은 노동, 직업, 연구, 거주, 여가, 단체의 영역에서 평신도 동료들을 보다 잘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세상의빛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교회의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의 최종목표를 수행하는 자리에 사회사도직이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평신도들에게주어진 소명으로서 사회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명하게 알수 있다.

교회가 평신도의 사회사도직을 이렇게 중요

하게 여기는 까닭은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사목 현장」 12항)라는 점만을 중시한 데 있지 않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교회 현장」 31항)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 (동 현장 33항)을 부여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하느님은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마음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 하셨다."(동 현장 35항)는 점은 그 사명의 숭고함을 잘 일깨워 준다.

평신도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사회사도직이기에 그에 대한 연구 소명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평신도들은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평신도 교령』 10항)는 것이 바로 그 소명이다.

사실, 연구 소명은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사목헌장」 4항)고 한 것이다. 교회의 의무적 연구 소명의 인식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서 비롯한다. "인류는 정적 세계관에서 동적, 혹은 발전적세계관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종합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방대하게 야기"(동 헌장 5항)되는 데 교회는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묻는다. "교회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대 사회건설에 무엇을 권고해야 할 것인가? 세계에서의 인간 활동은 무슨 궁극적 뜻을지니고 있는가?"(동 헌장 11항)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답하고 해답을 줌으로써인류와 그 속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 보다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종교적이며 따라서 극히 인간적임이 명백해질 것이다."고 단언한다. 더욱이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해야 한다. 진리에 바탕을 두고 정의 위에 건설되어 사랑으로 활기를 띠어야 한다."(동 헌장 26항)는 것이교회의 인식이다.

이러한 교회의 인식은 평신도 사회사도직의 연구 소명의 바탕이다. 「사목 헌장」 제2부는 몇 가지 긴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과 가정, 문화, 경제 · 사회, 정치,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촉진이 그것이다. 이 과제들은 모두 사회 사도직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내적으로 승격된 세속 지식과 자기 활동으로 효과적인 기여를 해 야 한다."(「교회 헌장」 36항)는 교회의 가르침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느님은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마음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 하셨다.



핫이슈

개 종단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7대 종단의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답게 살 것'을 다짐했다.

지난 2월 25일 수요일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모인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은 범종교인 『답게 살 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통해 각자가 가진 믿음 의 전통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 나아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미래의 꿈을 열 어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운동의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해 온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은 환영 말씀에서 "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잘못된 가치관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해도 이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를 교정하고 교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율에 따라 갈등과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를 화해와 일치의 사회로 변화시키고, 죽음과 단절의 문화를 생명존중과 신뢰문화로 변화시켜 온 국민들이 행복으로 가는 첫 문을 우리 종교인들이 활짝열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우리들의지속적인 쇄신과 새로운 삶이 하나의 촛불이 되어세상을 밝힌다면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비켜 서 있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 7개 종단에서 참석한 평신도들은 선언문을 통해 "종교인들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 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경외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 가정 나는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내 가족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살고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가정의 일원답게 살겠습니다.
- 종교인 나는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의 근원인 믿음을 보존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종교인답게 살겠습니다.
- <mark>직업</mark>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과 성실로 수행하며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눈 돌리지 않는 직업인답게 살겠습니다.
- **사회**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며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사회인답게 살겠습니다.
- 국민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살고 특히 분단된 조 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답게 살겠습니다.
- 인류 나는 하나뿐인 지구의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애쓰며, 인종과 민족, 지역과 국가,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지구인답게 살겠습니다.

민음의 전통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답게 사는 삶』의 실천을 통해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세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7대 종단의 평신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각 종단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될 『답게 살겠습니다』캠페인은 7대 실천과제로 나, 가정, 종교, 직업, 사회, 국민, 인류의 문제들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위의 표와 같이 제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7대 종단의 수장을 대표 하여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격려말씀 에서 "종교인 스스로 답게 살겠다는 선포는 참으 로 의미가 있다. 시대를 읽어가는 현실적 실천으 로 평신도가 스스로 앞장선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어울려 있을 때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조화롭지 못하고 답지 못한 데서 온다."며 "적절한시기에 좋은 운동을 시작한다. 반드시 성공하도록하자."고 말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각 종단에서는 『답게 살겠습니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 고 캠페인 추진을 위한 실행준비에 들어간다. ፟፟፟

28 29 평신도



평신도 에세이

엠마오 가는 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화



최순섭 베드로 불광동성당

이처럼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화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엠마오 가는 길이 아닐까,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뵈러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신다.

엠마오 가는 길에 우리는 부활의 중인이다.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어 봐야 아는 이야기 인데."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 모여 앉아 주님 의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 다. 그리고 벌써 잊고 살았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해 문화사목의 발원지 서울대교구 불광 동성당(주임신부 김민수 이냐시오)은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문화축제로 한창인 가운데 가톨릭독서콘서트가 달마다 열리 고 풍성한 나눔 행사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 게 지나갔다.

3년을 넘게 준비해 온 5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축복해 주신 기념 미사일 것이다. 온 국민의 기쁨과 찬양 속에서 지난해 2월 추기경님으로 서임되시면서 과연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우리 작은 본당에까지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던 4월 어느 날 추기경님의 일정이 바쁘 셔서 기념미사 날짜를 잡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 았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추기경님의 미사 집전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 온 우리 사목협의회 위원들과 총회장인 나는 내심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날 밤 촛불을 켜고 성모님 앞에 앉아 묵주 기도를 올리고 잠이 들었다. 한 세 시간 꼬박 잤을 까? 목이 타는 마른기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찬물 두어 컵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쥘부채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잠시 후 제자리에 누웠는데 부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어른거려 계속 잠을 설치게 했다. 언뜻 스치는 생각에 "저 부채가 선물이 되겠구나!"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결에 로마의 하늘이 보였다. 순간 크고 환한 별 하나가 선홍빛을 그으며 내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하, 그분은 천사였다. 긴 손잡이가 달려 있는 부채를 허공에 휘두르면 폭죽처럼 날리는 금가루, 나는 그 빛을 따라 습관적으로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을 열고 메모를 했다. 이처럼 순식간에 시를 써 내려간 것은 아마도처음 있는 일이다.

30

이렇게 로마에서 서임되신 추기경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추기경님께 드리는 시〈분홍빛으로 오시네.〉를 완성했다.

통일로 가는 길/가풀막 오르다 잠시 숨 고르는 작은 별 하나//성령의 불이 타올라 로마의 하늘 큰 별자리 무리 중에서 반짝이네.//그 은총의 빛은 만방에 폭죽처럼 번져/동방의 고요한 나라에 신비로운 빛으로 오시네.//어두운 삶 칸칸이 환한 등내걸고, 낮밤 없이 심장 뛰는 생명의 빛, 가난하고소외된 민초들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 전쟁과 질병 잠재우는 평화의 빛, 남과 북이 하나로 살 섞는소통의 빛//이 모든 빛은 순교의 피꽃, 꽃망울 활짝 피어 분홍빛으로 오시네.//온 세상 구하는 사랑의 빛으로 어린양들이 사는 작은 외양간에/그 말씀 전하러 오시네. - 『부홍빛으로 오시네』 전무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추기경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집전(6월 1일)하신다는 전갈을 받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모든 교우들이 희생과 봉사로 준비한 행사들을 부활절을 시작으로 5월 한 달을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사진으로 보는 50년〉을 필두로〈한지공예·도자성물 전시회〉다, 성심홀에서 열리는〈열린 음악회〉다,〈작은 도서관 개관〉을 했다. 또〈이웃 어르신 나눔 잔치〉,〈가톨릭독서콘서트〉,〈영화상영 퍼레이드〉,〈추천도서 감상문 쓰기백일장〉,〈성서 이어 쓰기〉, 그리고〈전 신자 여름캠프〉행사가 끝나면,〈교황님 방한 기념 불우 이

웃 돕기 바자회〉 등 또 시작되는 다음 행사가 예정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어지는 감동 과 은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제의 연속에서 드 디어 기념 미사를 올리는 날이 다가왔다.

우리 본당에 초청되어 오신 재직했던 신부님 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3지구 회장님들 지역사회 단체장들과 모든 신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추기경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다. 그리고 편찬 위원들이 숱한 고초를 겪으며 만든 결실인 〈참 세상의 빛〉 50주년 기념집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렸다.



미사가 끝나고 오찬 시간에 추기경님께 드리는 축사와 시〈분홍빛으로 오시네.〉를 낭송해 드렸다. 낭송이 끝나고 성심껏 준비해 온 쥘부채를 추기경님께 올려 드렸다.

이 가슴 벅찬 경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아주 커다란 힘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그 많은 행사 속에서도 아무 일 없이 잘 끝나게 지켜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늘 함께 계셨다. 그리고지난 하루하루가 씨를 뿌리는 봄이요, 하루하루 눈뜨고 보면 찾아오는 기적의 부활이었다.

이처럼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화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엠마오 가는 길이 아닐까,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뵈러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하고 물으신다. ▮



부활하신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우소서

황진선 대건안드레아 고양시 대화성당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변방에서 어울려 살며 양의 악취를 풍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왜관수도원을 찾은 가톨릭언론인산악회 일행(왼쪽에서 둘째가 필자)에게 박현동 아빠스께서 수도 생활과 수도원 시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양숙 체칠리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 매체에 종종 보도된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할머니 할아버지나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한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라는 표현도 자주 썼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워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삶은 믿는 분들이 적지 않다.

흔히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도 없다." 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로마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그 많은 성인과 순교자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32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늘나라의 하의 삶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보상이라는 추동력이 없다면 순수하게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현세의 삶과 가치 지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좇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지향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한 15,5)고 하셨다. 모두가 고립되지 않고 친교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와 하나가 된 가지처럼 살라는 뜻이다. 친교의 근본적인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강조하신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부터 성직자는 평신도든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으로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복음의 기쁨'에서도 "자기 안위만 신경 쓰고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고 말했다. 베드로 성당에서 봉헌한 성유 축성 미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의 강론에서 사목자는 '양의 악취'를 지녀야만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황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러 미 리프킨의 저작 〈공감의 시대〉는 의미심장하다. 리프킨은 공감(empathy)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한다.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의 시대가왔다는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과 협동심이 새 시대의 적자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공감 본능을 키워

왔다고 말한다.

사순시기가 지나면 부활절이다. 앞으로 대한 민국이 회개와 성찰을 거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과 '공감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방을 찾으려 노력하고 양과 어울리며 양의 악취를 풍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변방에서 어울려 살며 양의 악취를 풍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현 사회에 대한 성찰이 깊을수록 사회적약자의 권리도 확대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해방감도 맛볼 것이다.

하늘나라의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군은 결심으로 현세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일 상에서 마음에 예수께서 임하시도록 함으로써 행 복한 삶을 가꿀 수 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나 쁜 습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 아보는 것도 부활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매 번 후회하고 자책하면서도 종전의 좋지 않은 습관 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거기에서 헤어나기 만 한다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자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신앙이 몸과 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순시기를 지나면 달라지고 싶다. 주변 사람들을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 이기심이나두려움에서 비롯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속의 분노와 화는 제단에 올려 모두 벗어 버리고싶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주님께 받은몸과 마음을 오롯하게 봉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앞으로도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활하신 주님, 부디 저를 도우소서. ♣



어린 아들로부터 얻는 믿음 부활의 교훈

정동철 세례자 요한 개포동성당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 나도 주변인이 아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믿음 생활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2010년의 일이다. 6개월간주 1회의 예비 교리반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아이 엄마도 세례를 받았다. 모두 이들의영향이라 할 수 있다. 즉, 마냥 어리다고만생각했던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를 구원의세계로 인도한 어린양이었던 셈이다.

최근 둘째 아들의 복사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식은 교중미사 중간에 열려 많은 사람들의 축 복 속에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우리 아들이 졸업생을 대표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문을 발표했다. 떨지 않고 또박또박 발표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그보다 복사생활을 하는 동안의 감정을 어린 아이답게 숨 김없이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핑 돌 기도 했다. "내 아들이지만 그놈 참 기특하네."라 는 생각도 들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6년간 의 복사생활을 옆에서 지켜봐온 아빠이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들 따라 성당에 나갔던 아이가 하루는 복사를 하겠다고 했다. 당시 성당에 대해 잘몰랐던 아이 엄마와 나는 단순히 그런 게 있나 보다 여겼다.

그리고 아이가 복사생활을 했다. 당시 겨울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여느 해보다 춥고 눈도 많이 왔던 것 같다. 처음 40일 동안은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가 새벽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추운 겨울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며칠 하다가 말 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른 새벽에 아이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처음에는 엄마가 동행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특하다는 마음이 들어 나도 몇 번을 동행했다. 아들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끝에 정식 복사가 됐다.

친구들이 좋다지만 새벽 5시에 나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도 아니었다. 또 신앙의 깊이에 빠져 그 일이 마냥 좋기만 하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그 세상으로 인도했던 힘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아이가 저렇게 다니는데부모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 그것도 도리가 아닌것 같기도 했다.

아이 데리고 미사에 몇 번 참석해 봤던 터라 미사와 성당에 대한 적응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은가.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 나도 주변인이 아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믿음 생활을 해 보기로 한 것이다. 2010년의 일이다. 6개월간 주 1회의 예비 교리반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아이 엄마도 세례를 받았다. 모두 아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34

즉,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를 구워의 세계로 인도한 어린양이었던 셈이다.

교리반 시절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여간 쑥스럽고 불편한 게 아 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리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내용은 당시 한 신부님이 농담 삼아 말씀하신 천주교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 신부님은 "이름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주일헌금을 보통 1천원 내는 것 같다. 처음부터 이천주교나 삼천주교라 지었으면 2천~3천원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말해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있다.

어쨌거나 나는 6개월의 교리반을 나가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례식장에서 개 근상도 받았다. 이 부분만큼은 역으로 아들의 유 전자를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레지오 관련 에피소드도 잊을 수 없다. '될성부른 떡잎'의 새로운 형제를 발 견했으니 주변 아는 사람들이 자기 레지오에 서로 가입을 권했다.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변명이겠지만 결국 모두를 포기했 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레지오 활동은 하지 않는 다. 후회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믿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고 값진 봉사활동을 할 기회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레지오에 협력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직장 일, 친구모임, 조기축구 등등의 이유로 미사에 불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요즘의 내 모 습이다. 예전에는 성당 앞을 지날 때면 성모상 앞 에 들러 잠시 묵상도 했다. 잠깐이지만 마음의 평 화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성당 앞을 지나칠 때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글을 쓸 자격도 없지만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점이 많다. 어린 아들이 대 견하고 부럽다. 교리반 6개월 동안의 성실했던 내 모습도 찾고 싶다. 2015년 부활절이 포함된 사순시 기에는 내 믿음의 부활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듣는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을 그 실천의 첫 번째로 삼고 싶다.

이 글은 믿음에 길들여지지 않은 방황하는 한 사람의 반성문이자 지상 고해성사쯤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아들의 복사 졸업 소감문]

지난 6년간 복사라서 즐겁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 서기가 힘들고 귀찮았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5시에 일어나 새벽 복사를 섰던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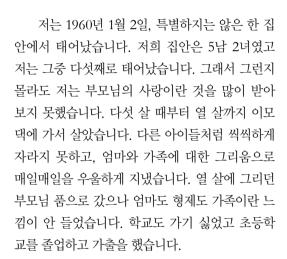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항상 주님은 제 편이 되어 주셨고, 늘 제 곁을 지켜 주신다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감사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신 신부님, 수녀님, 단장님, 학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하느님이 주신 완전한 부활

하용수 남종삼 요한 성모회울타리 대표

그때 저는 "하느님이 계시구나, 저는 살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북 안동으로 가출했던 저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시장에서 과일을 훔쳐 먹었습니다. 도둑질을 처음 했을 땐 두렵고 떨렸지만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과일을 훔쳐 먹고 있을 때 도둑놈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그 도둑놈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 맘을 알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같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경찰에게 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제일 좋은 판결이라며 저를 소년원에 보내 주었습니다.



열다섯 살 때, 소년원에 가서 명석말이로 구 타를 심하게 당하고 보니, 그 구타가 무서워 도저 히 도둑질을 다시 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 다. 폭력이 무서워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자리 잡고 신문팔이, 껌팔이를 했습니다. 하루는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바람에 매일 싸우고 머리도 깨졌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자리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칠 전팔기로 일주일에 열 번을 싸우니 터미널에서 깡 패로 유명한 친구가 드디어 "네가 이겼다. 그만 싸 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에 이기기 위 하여 유동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운동을 하던 때인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내를 그때 만났습니다. 운동선수인 것은 맞지만 대학생이라고 사기치고, 아버지는 마을회장이었지만 회장이라고 속였더니 아내가 넘어왔습니다. 1년 정도 만나던 어느 날, 아내가 안 나타나서 동사무소에 들러 희귀성인 편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2층집 창문이 잠겨 있기에 창문을 뜯고들어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 환한 곳에서 보니머리가 깎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의 장인어른께서 제 뒷조사를 해 보고, 맏딸인 제 아내가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고 사귀지 말라며 가둬놓은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체로 노름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노름으로 한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18년 경력으로 못하는 노름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폭력.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여자를 때리는 것. 터미널서 배운 것은 여자와 명태는 두드려야 한다는 것. 한 번은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때렸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고 온몸이 잉크처럼 멍들고, 뒤통수를 각목으로 갑자기 때리면 기절을 하고…

아내는 자기가 좋아서 집을 도망쳐 나왔기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저는 노름을 하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왜 이제 왔노?" 하고 묻는 그 한 마디에 누워 있는 산모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마약은 7년 정도 했습니다. 마약중독이 된 상 태에서는 남을 의심하고, 가정파탄, 사회문제, 폭 력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일 주일 이상 끊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마약을 하고 나면 아내도 마약을 했다고 의심하고, 폭력을 가 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 폭력까지는 참았지만 마약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어느 날 이웃의 자매님이 아내에게 성당 한 번 다녀보고, 안 되면 아직 어리니까 도망가라고 말했더랍니다. 그렇게 아내랑 같이 성당은 다니게 되었지만, 예전과 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 히 도박, 마약, 폭력.

성탄 전야 미사 때 신부님이 예비자도 오라고 하셔서 집에 와 있던 친구들을 먼저 보내며 "나중 에 다시 보자."고 약속하고 흥미도 없이 미사에 참 석하고, 뒤풀이로 성당에서 맥주도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땐 운동도 하고 건강할 때였는데, 이상하게 피곤을 느껴 집에서 잠깐 30분만 자고 가려고 한 것이, 그만 자느라 친구들 모임에 참석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고 살인사건이 나서 3명 모두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날 하느님이 저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36 37 평신도

세례 받기 전, 마약을 그만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가 순도 좋은 마약을 주면서 함께 하자기에 나가려는데 눈치 빠른아내가 알고, 레지오 단원 5명을 데리고 저를 붙잡고 30분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소에 가서 마약을 씻어내고 왔습니다. 1990.7.5 한국성인 남종삼 요한이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제게 세례를 내려주신 신부님은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데, 과연 세례를 주는 게 맞 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 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마약을 세 달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도 교리 받을 때,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보라.'는 기억이 남아 있어서, 마약을 하고 이틀 뒤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봤습니다. 밤 열두 시에도, 새벽에도, 신부님과 맞대면한채 몇 개월간 사흘이 멀다 하고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보속으로 마산 삼청 나환자촌으로 봉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환자촌을 다녀와서 다시 조산소에서 마약을 씻는데, "하느님 당신이 과연 계신다면 마약을 제발 끊게 해 달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 했습니다. 세례 받고 몇 개월밖에 안 된 신앙 초보자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두를 공평히 사랑하셨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날 이후로 회개의 마

음이 생기고 저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엽서 한 장이 왔습니다. 오순절 마을에 후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선을 했기 때문에 초대한 줄 알았더니, 성령 세미나 초청장이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던 중, 걷잡을 수 있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싸웠던 기억, 제가 받았던 천대 등등 모든 것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기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저는 무사히 성령세미나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수예식 중, 제안에 빛 같은 것이 들어오더니 온 몸을 뜨겁게 데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이 계시구나, 저는 살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모울타리라는 공동체는, 한 수녀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이름입니다. 늑대를 막고, 양을 지켜주는 성모님의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약에 손대지 않은 지 어연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재미있었던 도박은, 요즘 식구들과 카드 게임 20분만해도 질려서 그만두고 맙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폭력, 도박에 찌들었던 저는, 아내와,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 완전한 부활을 이루었습니다.

38



문화영성 산책

침묵에 이르는 길

김민수 신부 서울대교구 불광동 성당 주임

이번 호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칼럼을 연재합니다. 필자인 서울 불광동성당 주임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은 오랜 기간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를 역임하셨고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영성독서 지도자과정 등을 창립해 활발한 문화사목을 펼치고 계십니다. 〈편집자 주〉



1. 침묵을 잃어버린 도시

우리는 각종 소음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다.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음 과 매연에 시달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성 공한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삶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도시 소음 속에 태어나고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좀처럼 침묵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침묵에 대한 공포마저 느낀다. 심지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미사전례 중에 휴대전화 벨소리는 침묵과 고요를 깨고하느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기 일쑤다.

아파트, 도로, 골목길, 쇼핑센터, 극장, 회의실, 사무실, 식당, 지하철 등 언제어디서나 소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없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천만 도시인이 서식하는 도시는 침묵을 잃어버리고 소음에 갇힌 공간"이라고. 이제침묵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대신하여 소음이 '도시인의 소리'로 들어섰고, 아예 소음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 그만큼 도시공간이 속도와 빠름이라는 시간 개념에 지배

힐링산업 (healing industry)ol 유행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을 상징하는 수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아를 찾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평문화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다.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음속으로 비행할수록 하늘을 가르는 엄청난 소리를 내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삶, 바쁘게 사는 삶이 시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일 상화된 소음의 문화는 점점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소통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여 '생각하지 않는 도시인'을 만들기 십상이다.

2. 침묵을 지향하는 건축

요즘 전 국토의 아파트화가 목표인양 여기저기 공사판이다. 주거할 공간의 절대 필요성에 부응한 현상이지만 획일적인 아파트 건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땅 위를 향한 '수직문화'로 나타나면서 점점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고 소음에 따른 불협화음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충간소음'이다. 위충과 아래충간의 불화가 생겨나고 급기야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기도 한다. 소음으로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게 하는 아파트의 구조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웃과 자연을 배제한 아파트 건물은 숲을 방불게 할 만큼 빽빽이 들어서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인위적이고 인공적 인 콘크리트 건물들에서 참된 인간성은 상실해 간다. 요즘 힐링 산업(healing industry)이 유행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을 상징하는 수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자아를 찾고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평문화의 회복을 위한 몸부럼이다. 물론 힐링이 문화코드로 상업화된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쉼, 틈, 여유, 여백, 비움, 침묵, 명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역합도 무시할 수 없다.

얼마 전에 개인피정을 위해 머물렀던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은 가운데 네 모반듯한 커다란 마당을 중심으로 주위를 둘러싼 건축 구조로 되어 있다. 수도 원 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움의 공간은 수사들에게 삶의 여유와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며 다양한 교류의 매개가 된다.

불광동 성당은 세속의 소음을 벗어나 침묵 속에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된 건축물이다. 이 성전을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 선생은 세속과 성스러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성당 앞이 통일로 대도로이고 언덕이라 수많은 차들과 복잡한 교통으로 엄청난 소음과 매연, 먼지투성이를 만들어내고 있기에 건물의 입구를 돌려세운 것이다. 그래서 소음과 복잡함 속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호젓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50여 미터 남짓한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속의 먼지를 털어낸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골고타 언덕을 오르는 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분 수난의 고통에 참여한다. 성전의 문을 여는 순간 마음속이 거룩하게 된다. 특히



올라오면서 야트막한 층계를 따라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정리된다. 하느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침묵과 기도 속에서 천천히 성화된다.

3. 침묵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공간

현실공간이든 일상화된 디지털 문화의 가상공간(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SNS 등)이든 소음문화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소음의 식민지화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해 피로감에 심하게 노출되고,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화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극단적으로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위험사회로 치닫는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침묵의 시간,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비움의 자리인 침묵의 공간이 필요하다. 종교적으로 침묵은 하느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공간이다. 침묵은 내면의 소통 현상의하나인 묵상 또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된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침묵을 양심이나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침묵은 삶을바꾸어 주는 힘이다.

이탈리아 수비아코에 가면 '베네딕토 동굴'이 있다. 서방 수도생활의 아버지인 베네딕토 성인은 젊은 시절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도시생활의 방종과 혼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발견한 순간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깨닫듯이… 참다운 성찰은 한 개인의 진정한 회개로 이끈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배경에는 침묵이 존재한다.

란에 회의를 느껴 수비아코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3년 동안 고행과 기도의 은수생활을 한 후 수도자로 거듭난다. 우리 모두에게도 베네딕토 동굴이 필요하다. 이 동굴은 고요함, 침묵의 장소를 상징한다. 침묵이란 동굴에 들어갈 때 세상의 소음이 멈추게 되고, 활동과 욕망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우리가 침묵이란 동굴에 들어설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올바로 들여다보는 성찰이 가능하다. 마치 맑고 고요한 호수가 하늘을 그대로 찍어내듯이 성찰은 또 다른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듯 대면하게 한다. 타자화된 자아를 볼 때 자신의 진면목과 마주치는 순간이 된다. 양심이 제대로작동되는 사람은 이 순간 적나라한 자신을 보고 인정한다.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난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돼지가 먹는 열매로 굶주린배를 채워야 했을 때, 가장 비극적인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자신을 발견한순간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깨닫듯이… 참다운 성찰은 한 개인의 진정한회개로 이끈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회개의 배경에는 침묵이 존재한다.

4. 침묵의 실천

침묵을 주제로 한 다큐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하나는 남자 수도자들의 삶을 보여 준 〈위대한 침묵〉(2005)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녀들의 삶을 다룬 〈사랑의 침묵〉(2012)이다. 전자가 침묵에 무게를 두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후자는 수녀들의 수도생활 전반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인터뷰를 통한 그들의 신앙관을 엿보게 한다. 둘 다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단순하고 단조로운가를 알려 준다. 세상에서 격리된 채 기도와 묵상, 일, 고행에만 전념하는 공동체이지만 복음의 진리라는 빛을 비추고, 침묵의 삶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정화하는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매일 일정 시간 TV나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OFF' 해 놓고, 음악도 듣지 말고, 단 30분만이라도 홀로 앉아 고요히 '침묵체험'을 해 보면 어떨까? 영적 독서나 성체조배를 통해 묵상기도와 관상기도가 된다면 더욱좋을 것이다. 최소한 일 년에 한두 번 침묵피정에 참여해 보자. 침묵의 시간은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영혼이 스스로 쇄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평신도가 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M.B.W)

대담 · 정리 권지영 데레사 편집위원

Movement for a Better World!

M.B.W에 대한 취재를 준비하면서 Movement for a Better World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알게 됐을 때 이보다 더 신성한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M.B.W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더욱 생겼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MBW 한국공동체추진봉사회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원유술 야고보 신부님과 통화했습니다. 야고보 신부님은 현재 포항 죽도본당의 주임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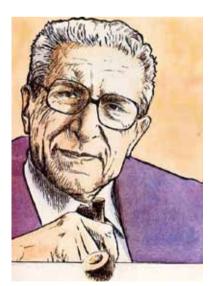
★ MBW에 대한 전반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M.B.W는 Movement for a Better World의 약자로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창시자는 이탈리 아 출신으로 예수회 소속인 롬바르디(Riccardo Lombardi Si) 신부입니다. 1939년부터 롬바르디 신부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실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전 유럽이 초토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부터 본격 화했습니다. 이때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형제애'를 촉구하 는 강연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연 요청이 잦아 지면서 강의실에서부터 극장에서까지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급 기야는 광장에서 대중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사랑의 십자군'이 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그에 따라 협조자 즉 추진회(Promoting Group)가 구성됐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가 M.B.W의 법적 실체를 확립해 주셨고. 그 기반을 완성해 주



롬바르디 신부

42 43 평신도



40주년 행사 때 찍은 사진으로 가운데 계신 분이 최덕기 전 수원교구 주교 그 오른편 흰색 옷 입으신 신부님이 MBW 회장 원유술 야고보 신부.

셨습니다. 마침내 1988년 12월 14일 교황 바오로 6세께서 M.B.W 추진회를 '평신도 단체'로 승인하셨고, 현재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 롬바르디 신부가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교회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롬바르디 신부는 M.B.W운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변혁은 그 변화의 원동력이요, 도구인 교회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인 형제애의 공동체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하면서 교회의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롬바르디 신부는 자연히 교회의 부 정적 모습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예언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위성직자들의 비위 를 상하게 했고, 급기야는 교회재판소에 고발당하 게 됩니다.

이때 구세주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당시 교황 비오 12세였는데요. 롬바르디 신부를 교황청에 소환해 긴 시간 대화를 가졌고, 그의 참뜻을 파악하시면서 M.B.W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

감했습니다.

또 오히려 롬바르디 신부의 사상과 뜻이 교회 쇄신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이 운동의 이름을 친히 M.B.W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이 후 교황은 자신의 별장을 운동의 본부로 내어 주시는 등 운동을 적극 후원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지난 1952년 2월 10일 롬바르디 운동을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교황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롬바르디 신부는 교회 쇄신에 헌신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였는데요. 공의회가 개회되기 전 1000여 명의 주교님들이 소집돼 피정을 하게 되는데 이 피정을 롬바르디 신부가 지도하게 됐습니다. 이는 롬바르디 신부의 뜻이 피정을 통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밑바탕을이루게 됐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피정에서 한 강론의 내용인 '형제에'란 주제는 책으로 출판되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공의회가 끝났을 때 이 공의회의 모든 신학적 기초 안을 작성했던 쉬넨스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숨은 공로자는 롬바르디 신부다."고 술회한 바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M.B.W는 더 이상나아질 필요가 없는 하느님 나라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기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며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M.B.W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이 운동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며, 도구인 교회의 쇄신을 위해 계속적으로 투신합니다. 이 순간 세상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인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나아지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 운동에는 유연성과 끊임없는 연구가 요구되고 희망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인 모험정신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의 추진회원들은 순례자들로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고, 자각케 하며 회심하도록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 한국에서의 M.B.W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M.B.W 한국 추진회 역사는 1966년 박도세 신부가 롬바르디 신부를 초청해 이 운동의 한국 진출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후 1968년 M.B.W 한국 추진팀을 구성해 발족했습니다. 1973년에는 서울대교구가 추진회를 구성하면서 대구, 부산, 광주, 마산, 전주, 원주, 청주, 대전 추진팀이 구성됐습니다. 2004년 현재 9개 교구(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원주, 안동, 수원)에 추진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동체추진봉사회는 전국에 90명 정도 회원이 있고, 신부님이 30분 정도 됩니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M.B.W 연수에 참여한 신자중에서 특별히 M.B.W의 뜻에 공감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물론 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신부님과 회원들은 교구로 나눠 연수(Convivenza)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3박4일 과정(목, 금, 토, 일)으로 프로그램은 M.B.W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나누기와 체험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Convivenza를 통해 '참여와 관계성의 영성'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당에서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 전주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0주년기념행사를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

롬바르디 신부는 MBW운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변혁은 그 변화의 원동력요. 도구인 교회가 먼저 하느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인 형제애의 공동체로 저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착아하면서 교회의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복자들의 영성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국교회의 영원한 평신도의 귀감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형리들은 곧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참수형을 집행하기 위해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태연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머리를 누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선정을 베풀어 팔도 선비들의 존경을 받던 진 주목사 정재원은 아들 넷을 두었습니다. 약현, 약 전, 약종, 약용 이렇게 4형제인데 모두가 한국 초대 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중 정약종(아우구스티노 1760~1801)은 정재 원의 셋째 아들로 1760년 경기도 광주의 마재(현 경 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중 유조이(체칠리 아·1839년 순교) 성녀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고 정하상(바오로·1839년 순교) 성인과 정정혜(엘 리사벳) 성녀와 이번에 새로 시복된 정철상(가롤 로·1801년 순교) 복자는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달레 신부는 그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정약 종을 두고 "천주교가 이 나라에서 가졌던 가장 유 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새로 시복되신 것에 우리 교회의 숙원이 풀린 듯 감격하면서 이 위대한 순교자가성인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삼가

유덕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는 천성이 곧고 총명하며 연수심이 강하여 일찍이 학문에 전념하여 문필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점잖고 학식 있는 인사들과 교제하여 이 가환 등 당대의 저명한 선비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신양명을 위한 과거 시험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에 증진하여 철학, 윤리 등의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한동안 그는 추종자들에게 불사의 비법을 얻겠다고 약속하고는 노자의도를 연구하기도 했고, 또 의학에 심취하여 큰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천주교가 전래되자 그는 곧 교리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교리를 따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벽의 신앙생활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91년에 그의 망설임은 끝이 났습니다. 이때가 제사 문제로 마음이 상한 지식인들이교회를 떠날 때인데 그때 그는 성세 입교합니다.

그는 이때 자신이 처음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망설였던 점이 마치 성 아우구스티노의 젊은 시절 지성의 방황과 닮았다고 생각하며 그를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받들며 본명 을 아우구스티노로 정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이후 다시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찬사도 미칠 수 없는 열심과 항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791년 진산사건으로 박해가 시작되었 을 때에는 비참하게 배교한 형제와 친구 들 속에서 그는 뛰어난 모범으로 신앙생 활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약종을 친하게 지냈던 황사영은 그 의 사람됨에 대해 이렇게 막해 주고 있 습니다. "그는 세속 사정은 조금도 돌보 지 않고 오직 철학과 종교 연구름 즐겨 하였다. 교리의 어떤 점이 분명치 않다 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연구하느라 침 식을 잊고, 그것을 밝힐 때까지는 휴식 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길을 가거나 집 에 있거나, 말을 타거나, 배를 타거나 깊 은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무식한 사람 을 만나면 온갖 정성을 들여 그를 가르 쳤으며,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아무리 우두하더라도 그들에게 자기 의 말을 이해시키는 데 신기할 만큼 능 숙했다. 그는 조선 말로 〈주교요지〉라는 두 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책에는 그가 천주교 서적에서 본 것을 모아 놓은 다 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으며, 무엇보다 도 명백히 그것들을 설명하는 데 힘썼 다. 이 책들은 이 나라의 새로운 교우들 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되었으며 주문모 신부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정약종은 교우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눈 후 공교리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리이외의 쓸데없는 말을 끼울 수가 없었다. 그가 통달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을 누군가가 풀어 주면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흘러 그 대화자에게 뜨겁게 감사하였다. 반면 냉담자나 우둔한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기꺼이 듣지 않으면 그는 근심과 걱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문제들을 질 문하였는데, 그는 정확한 답변과 단순하 고도 명백한 말로써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앙을 굳게 하고 애덕을 더하게 했다."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교리지식을 바탕으로 교리서인 〈주교요지〉 상. 하 를 저술하여 당시 중국의 교리서인 〈성 세주요〉를 능가하였고 종합 교리서인 〈성교전서〉를 집필하던 중 1801년 박해 로 슈교하셨습니다. 마재에서 서울로 말 을 타고 가던 중에 정약종은 금부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잡으러 가는가를 알아보게 하여 금부도 사가 정약종을 체포하러 가는 길임을 알 고 그 자리에서 곧장 감옥으로 갔습니 다. 심문을 받는 동안 그는 엄숙히 신앙 을 고백하고 천주교 진리를 설명하고 자 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을 배반 하는 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체포된 날로부터 엄한 형벌과 문초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유혹과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고 교회와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심문을 받는 동안 그는 엄숙히 신앙을 고백하고 천주교 진리름 설명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을 배반하는 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46 47 평신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오로지 천주교 교리가 올바르다는 것만을 설명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천주님을 받들고 섬기는 일에는 옳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천주님은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입니다. 천주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박해자들은 아우구스티노를 굴복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는 오히려 박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의금부의 사형 선고를 허락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최후는 그의 일생과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얼굴은 어떠한 희열에 잠긴 듯 아주 빛났습니다. 도중에 그는 수레를 끄는 사람들을 불러 "목이 마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물을 청하는 것을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물을 청한 것은 나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옥중과 법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치지 않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며 전교하였던 그의 최후의 순간인 순교의 형장에서도 열정을 다해 교리를 설명하여 형장이 마치 열정어린 전교의 강단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상용될 형구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나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흠숭하올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분이 당신들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당신들은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을 어리석게 멸시와 조소거리로 삼지 마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 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형리들은 곧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참수형을 집행하기 위해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태연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머리를 누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우리러 보면서 죽는 것이 낫 다."고 하셨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그의 형장에서의 열변과 의연한 마지막 자세를 보고 망나니는 벌벌 떨며 감히 칼을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관장의 지엄한 독촉을 거듭 받고서야 마지못해 자신이 없는 손놀림으로 첫 번째 칼을 겨우 내리쳤는데 이로 인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목은 절반밖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혈이 낭자하고 보는이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순간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순간 그는 조용히 크게 십자성호를 긋고 다시 누워 칼을 받을 자세를 취했습니다.

48

'슈교의 칼'

그것이 소원인 듯 태연한 그의 모습에 장내는 일순 숙연 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칼을 받고서야 그토록 열망하던 순교의 영광 속에 그의 영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국 최초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명도회의 초대회장, 한국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한 분이신 그는 나그네로 이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시신은 정성스럽게 거두어져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가 장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척과인척들은 외교인이건 천주교 신자이건 그의 무덤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반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재산은 모두 정부의 특별한 명령으로 몰수되었습니다. 그때 맏아들인 정철상 가롤로 복자는 아버지와 삼촌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옥 근처에 머물면서 지극한 효성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인 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약용는 경상도 장기로 각각 유배되었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아버지의 옥중고초는 더욱 심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만고 효자인 정철상은 관료들로부터 아버지 정약종의 목숨을 담보로 주문모 신부의 소재를 알리라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상은 고심 끝에 아버지께서 신부를 밀고하고 목숨을 구걸하실 분이 아니라는 단호한 결단으로 이를 이겨냈습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고뇌를 승리로 이끌어냈지만 마침내 아버지 정약종이 순교의 영광을 얻자 바로 그날(1801년 4월 8일 - 음력 2월 26일) 국청의 명으로 아들 철상도 형조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짚신을 삼아 겨우 먹을 것을 구하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약종의 뒤를 따라 순교하였고 이번에 시복되셨습니다. 그의 남은 가족은 고향 마재로 갔으나 국법을 어긴 죄인의 가족이라 냉대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이 냉대와 시련 속에 우리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요, 순교성인이 되실 정약종의 어린 아들이요 정철상의 아우인 정하상 바오로의 어린 시절이 눈물 속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림/ 탁희성 화백 신유박해가 일어나 아버지 정약종과 숙부들이 옥에 갇히자 정철상(가롤로)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뛰어난 교리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쉬운 한글 교리서 「주교 요지」를 쓴 정약종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 회장으로서 초기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

인문학 강좌

이웃과 사회공동체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인간은 이성과 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연대감을 갖고 자아실현과 사회공동체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요한 칼 로스, 〈착한 사마리아인〉

가정 밖으로 나가 서로 접하여 사는 이들을 이웃이라 부른다. 이웃에 살며 정이 들어 친분이 두터운 이들을 이웃사촌이라 칭한다. 예전에는 이웃의 대소사와 애경사를 챙길 뿐만 아니라, 빈대 떡만 부쳐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이사하면 으레 이웃에게 떡 접시를 돌리고, 이웃은 그 보답으로 과일 한 알이라도 접시에 올려 되돌려 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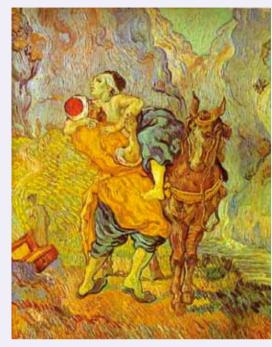
써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애정이 식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과 마을,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도 공동운명체로서의 인식이 박약해지고 말았다. 내가 사는곳에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핵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어설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악다구니를 쓰게되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시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사는 곳에 유치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에 따라 극성하게 된 집단이기주의인 소위 님비(not in my back yard)와 펌피(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바로 그러하다. 재미있는 옛날이야기한편이 떠오른다.

신라 성덕왕 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친구가 도를 닦기 위해 산 속에 암자를 따로 짓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리따운 낭자가 달달박박의 암자에 찾아와 의미심장한 시를 지어부르며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달달박박은 사찰은 깨끗해야 하니 여인이 가까이 올 곳이

아니라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어 낭자는 노힐부득의 암자에 찾아가 또 다른 노래를 부르며 재워 주기를 청하였다. 노힐부득은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더욱이 깊은 산골에 밤이 어두우니 어찌 소홀히 하겠느냐며 안으로 맞아들였다. 노힐부득은 잡념 을 물리치기 위해 밤새 염불을 쉬지 않았다. 그러 던 중 낭자가 해산기가 있다며 도움을 청하였다. 노힐부득은 하는 수 없이 방에 짚자리를 깔아 주 고, 물을 데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도왔다. 해산 한 낭자는 노힐부득도 그 물에 목욕하라고 권하였 다. 노힐부득이 마지못해 그 말에 따르자 물에 연 화대가 생겼다. 그제야 낭자는 자신이 관음보살이 며, 대사를 도우려 왔다고 실토하였다. 이튿날 달 달박박이 찾아가 보니 몸이 금빛으로 물든 노힐부 득이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내고 있었다. 달달박박이 사연을 듣고 후회하자 노힐부 득이 목욕을 권해 그 역시 무량수불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구름을 타고 서방으로 갔다.(『삼국유 사 권3 탑상4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서방정 토에 왕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여인으로 현신한 관음보살은 수행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리 시험하였다. 관음보살은 자신이 득도하고 난후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승적 성향의 수행자인 달달박박보다 중생과 더불어 득도하겠다는 대승적 성향의 노힐부득을 먼저 득도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음보살의 선택은 달달박박이 행한 소승적 수행방식보다는 노힐부득이 행한 대승적 수행방식을 높이 평가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음보살이 소승적 수행방법에 대해잘못이라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소승적 수행 자세를 지



반 고흐, 〈착한 사마리아인〉

니고 있던 달달박박 역시 노힐부득과 마찬가지로 득도하였으니 말이다. 수행방식은 시대상황과 종 단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기질에 따라 최고선이 결정된다. 하지만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대승적 수행방식이 우위에 선 것은 이 이야기를 전승하던 이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시회공동체 의식은 오래전부터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공동체는 수렵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점차 공 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변모되었다. 자연히 개인 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가 자신과 자신 이 속한 사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있어 이웃에 게 한 치의 양보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면모는 개

50 51 평신도

인주의 내지 자유주의가 사회집단주의 내지 전체 주의와 대립 갈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개 인주의 내지 자유주의는 개인의 발달과 완성이 최 고 목적이므로 사회공동체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필요악과 같은 계약의 산물이라 고 정의한다. 반면 사회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는 개인을 집단 전체의 목적에 종속시키므로 개인은 사회라는 유기체의 세포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러한 상반된 목적을 융합하여 양자를 조화롭게 공 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선(共同義)이다.

공동선은 사회보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 든 정신적 · 물질적 가치와 재화로서 사회에 이익 이 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도 이익이 되다는 인식이다. 즉 개인의 발전과 이익이 곧 사 회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이며, 역으로 전체로서의 사회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곧 개개인을 위하는 길 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 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사목헌장〉 26항)는 가르침에 주목하는 한편, '가톨릭 신자들 은 진정한 공동선을 증진하여야 할 책무를 자각하 여. 국가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법률이 도덕률 과 공동선에 부응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 다.'(〈평신도 교령〉14항)는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인간은 이 성과 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 해야 하며, 자신뿌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 하여 연대감을 갖고 자아실현과 사회공동체 발전 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공동선을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는 극단적 인 예를 들며 반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힐부 득이나 달달박박처럼 깊은 산속의 암자에서 홀로 수도하는 이들이 과연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에 대해 의무읔 제기한다. 또는 우리 가톨릭교회 의 봉쇄수도원이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에 기 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노골적인 회의를 드러내기 도 한다. 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수도자들은 자신 들만의 삶을 영위하기에 공동선과는 거리가 멀다 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수도자 개인 입장에서 는 사회공동체를 떠났다고는 하지만, 의식주를 비 롯한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을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그가 사회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단 언핰 수 없다. 반대로 사회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수도자가 격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열망이 오로지 수도자 개인의 영달과 행복만을 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 는 바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기원이 사회공동체가 안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 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오늘도 새롭다.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본체만체하였지만, 유다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가. 나는 이웃과 사회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 29-37) ▮

52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

황인수 이냐시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



성바오로수도회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가 김선명 스테파노 수사와 함께 2011년 7월 3~23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전 행적을 둘러봤습니다. 교부신학을 전공한 수사답게 지역과 사물뿐만 아니라 성인의 영성까지 묵상하게 하는 순례기를 이번 호부터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아시시의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

가까스로 열치를 탔다. 로마의 중앙역에 자주 왔던 터라 이곳을 잘 안다고 여겼던 게 화근이었다. 아시시행 열차를 타는 곳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 시간이 다 되었어도 플랫폼에 기차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이상해서 물었더니 반대쪽이라는 게 아닌가. 아뿔싸! 출발이 임박했으므로 배낭을 지는 등 마는 등 마구뛰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겨우 제 자리를 찾아 한숨을 돌리고 서로를 바라보니 얼굴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다.

여기는 로마의 테르미니 역. 우리는 아시시의 가난한 성자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가는 길이다. '가난한 성자'라고 했지만 프란치스코에게는 오히려 '거룩한 빈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거룩한 빈자, 이탈리아 말로는 '산토 포베렐로'(santo Poverello)가 된다. 그 어감을 살려 우리 말로 옮기면 '거룩한 가난뱅이' 정도가 될까. 우리는 아시시의 이 가난뱅이를 찾아간다.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의 고귀함을 선포했던 성인을 만나러 간다. 가난은 온통 천덕꾸러기가 되고 욕심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세상, 때로 탐욕이 덕이 되어 버

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1990년대가 시작될 때 우리 사회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부유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목표처럼 되어 버린 것 같다.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나 어떤 일이 가치 있다는 말을 할 때는 흔히 그것이 몇 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다느니 몇 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기준이 돈임을 이렇게 매일 무의식적으로 배우며 우리는 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찾는 것을 만나게 된다. 단 진 정으로 그것을 찾는 한에 있어서만. 어쨌든 열차는 놓치지 않았고 좋은 도반이 곁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이 여정의 끝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햇볕을 가리려고 내려놓은 커튼 사이로 스쳐가는 차창 밖 움브리아의 풍경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로 인사를 건넨다.

"평화와 선!"

돗자리 숙소

순례자 숙소에 짐을 풀었다. '레 스투오이에' (le Stuoie)라는 특이한 이름의 숙소다. '스투오이에'는 '돗자리'라는 뜻인데 초창기 프란치스코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말이란다. 1219년(또는

1217년) 5월에 5.0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총회를 열 었을 때 벌판에 나뭇가지와 돗자리를 엮어 지은 숙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총회를 '돗자리 총회' 라고 부른다고 오웤이면 밤에는 아직 쌀쌀한 때 다. 숙소 사정이 그 정도였으면 음식 사정은 두말 할 필요도 없었을 터. 그러나 그때 페루지아. 아시 시. 스폴레토 등 근방 사람들이 당나귀와 수레에 다 빵과 포도주, 치즈 등의 음식과 식탁보, 컵 등을 싣고 몰려왔다고 한다. 마치 복음서의 빵을 많게 한 기적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빵을 나눔 때 우 리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형 제자매를 알아본다."고 했던 이는 도로시 데이였 다. 하느님 나라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 닐까. 우리는 웅장한 성당을 짓고 멋있는 영성 강 의를 들으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하느님 나라 를 찾는 데는 덮을 담요 한 장. 이웃과 나눌 음식 조금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돗자리 총회' 숙소는 아시시역에서 가까운 '천 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 옆에 있다. 이곳은 평



야 지역이어서 수바시오 산의 사면에 자리하고 있 는 아시시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 기왕 순 례를 온 것. 걸어서 가 보기로 했다. 천사들의 성 모 마리아 성당에서부터 거리에 깔린 붉은 벽돌을 밟으며 아시시 시내로 올라간다. 1997년 지진으로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무너지고 유명한 지오토의 벽화가 손상되었을 때 이탈리아 전역에서 복구 성 금을 모았는데 그때 붉은 벽돌에 성금을 낸 사람 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적어 이렇게 깔아 놓았 다고 한다. 재미삼아 벽돌 하나하나 살펴보며 건 자니 멀리 시칠리아 사람, 나폴리 사람, 베네토 사 람...온갖 지역 사람들이 다 있다. 프란치스코 성 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에 게 공통적이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것을 증명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 은 다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는 것. 그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으로 불태우면 우리는 그 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프란치스코 성인 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1182년 초에 태어나서 1226년에 하느님께 돌아간 성인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사랑한 것과 지금 우 리가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뜻이다. 옛사람의 말 씀을 떠올린다. "얕은 못의 물이라도 바다를 본받 을 수 있나니 그 본성은 같기 때문이라."

프란치스코, 길을 떠나다

키에사 누오바(Chiesa Nuova)에 도착했다. 이건물은 1615년 프란치스코의 생가 위에 세워진 교회로 키에사 누오바는 '새 성당'이라는 뜻이다. 성당 앞 광장 한편에 청동으로 된 두 사람의 입상이 있는데 남자는 옷 같은 것을 들고 있고 여자는 쇠사슬을 들고 있다.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하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여긴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는 격분하여 그를 가둔다. 그러나 어머니 피카 부인은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아들을 풀어 준다. 결국 프란치스코와 아

54

버지 피에트로는 주교 앞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프란치스코가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분만을 아버지로 부르겠다고 선언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버리자 피에트로는 흩어진 돈과 옷가지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 서 있는 청동상은 실은 프란치스코의 부모를 형상화한 것으로 청동상 옆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인류에게 아들 성 프란치스코를 (낳아) 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피카 부인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생생한 표지로 이 기념상을 세운다."

잡으려는 아버지와 떠나려는 아들, 아버지에 게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꿈 이 있다. 아버지의 세월은 지나갔으나 그에게는 힘이 있고 아들에게는 꿈밖에 다른 것은 없으나 떠나지 않으면 그는 어린아이로 남을 뿐이다. 키 에사 누오바 성당 안에는 그가 갇혀 있던 집안의 감옥이 보존되어 있다. 제대 왼쪽, 예수 성심상 옆 으로 난 무읔 통과하면 프라치스코의 생가 흔적음 볼 수 있다. 그는 회심하기까지 24년을 여기서 살 았다. 성당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다는 아버지 피에트로의 작업장으로 여 겨지는 장소와 당시 길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다. 아마 프라치스코도 이 길을 자주 지나다녔으리라. 벽으로 난 '사자(死者)의 문'(porta del morto) 옆에 걸린 테라코타는 어머니 피카 부인의 도움으로 집 을 빠져 나가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가 집을 나온 문을 '죽은 이의 문'이라 고 부른다는 것에 생각이 오래 머무른다. 그는 이 문을 열고 죽은 이들의 세계를 떠났던 것은 아닐 까.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일하던 가장이 다쳐 생계가 막막해지자 일가족이 생의 끈을 놓아 버리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이 핍박받고 한꺼번에 해고되고 스무 명이 넘도록 세상을 버려도 무관심한 세상에서 나는 산다. 이 것은 정말 사는 것일까. 혹 우리는 다 죽어 있는 것 은 아닐까. 키에사 누오바에서 프란치스코의 집으 로 통하는 문앞에 서자 퍼뜩 그런 생각이 든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리스도, 그대 위에 빛나시리라." (에페 5,14)

키에사 누오바 광장에서 아랫길을 따라 내려 오면 '산타마리아 마조레'(Santa Maria Maggiore) 성당이 나온다. 전에 아시시의 주교좌였던 이 성 당 옆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서 꼭 기억해 야 할 장소인 주교관이 있다. 아버지 피에트로 베 르나르도네와 아들 프란치스코 사이에 재판이 있 었던 곳. 부자지간에 이런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런 소송을 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아들 프란치스코의 대응 도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재판관인 구이도 주교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 니다."고 선언한다. 그러고선 돈을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입고 있던 옷가지마저 다 벗어 버리는 아 들이라니! 제 손으로 키워 온 아들이니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았으리라. 온 아시시가 떠들 썩하게 재판을 건 것은 아마도 미리 강경하게 나 가서 아들을 주저앉힐 심산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아버지를 떠난다. 아버지 에게서 받은 돈도 옷도 다 돌려주고 완전한 가난 을 선택한 것이다. 성인의 생애에서 이 대목에 이 르면 '적빈'(赤貧)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



영화 속 '인간과 세상'

나의 삶이 '역사'다

이대현 요나 영화평론가

'위안'이란 묘하다.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 진저리를 치는 고통과 눈물도 위안이 된다. 그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추억'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영화가 우리의 '기억'을 불러낸다. 소설도, 연극도 마찬가지다. 허구이든, 실제 인물이든 작품 속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삶을 추억하고 기억을 더듬게 만든다. 중국의 위화는 소설〈허삼관 매혈기〉를 쓰면서 "단지 두 사람의 역사를 허구적으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지만,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나간 삶을 추억하는 것은 그 삶을 다시 한 번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대 로마 시인 마티에르). 영화는 미래 상상의 세 계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때론 기억의 문을 두드려 행복 했던 시간을 불러오거나,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난 삶으로 되 돌아가도록 한다. 그곳에 역사가 있고, 현재를 이어주는 사건 이 있다.

역사란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주인공도 인간이고, 기록자 도 인간이다. 역사가 모든 인간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와 무관한 인생은 없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 사를 만들든, 역사에 의해 자신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든, 나의 삶이 역사'이다.

〈지리산〉의 소설가 이병주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인간들, 산맥이 아닌 골짜기를 기록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했다. 영화 역시 하늘 높이 솟아 태양이 비치는 인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드라마/ 2014.12.17/ 126분/ 한국/ 12세 관람가/ 감독 윤제균



달빛에 물든 골짜기 걸으며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난다. '위안'이란 묘하다. 다시는 기억 조차 하기 싫어 진저리를 치는 고통과 눈물도 위 안이 된다. 그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 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추억'이기 때문 인지도 모른다.

지난 60년 현대사 앞에 '격동'이란 말을 붙인다. 거센 폭풍에 휘청거리고,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수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냈고, 그 눈물과 땀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한걸음씩 더 나은 삶으로나아갔다. 누군가 '운명은 시간'이라고 했다. 그 시절에 태어나 온몸으로 그 격동을 지나가야 했던사람들.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의 덕수(황정민)도 그중 하나이다.

한국전쟁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독일 탄광에서 몸이 부서져라 곡괭이질을 했고, 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소박한 미래까지 포기했고, 여동생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 베트남에서 목숨을 걸었다.

덕수는 미국 영화〈포레스트 검프〉, 스웨덴 영화〈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주인공과 닮았다. 영화가 만들어낸 가공의 상황설정으로 그는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어김없이 서 있었고, 그 파도를 고스란히 맞았다. 상상과 과장으로 〈국제 시장〉이 덕수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한 순간일망정 그곳에서의 우리의 추억을 불러내고, 위화의 말처럼 그 추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제시장〉은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이야 기를 시작한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의 금순이가 막순이로 바뀌었을 뿐. 1.4후 퇴 때 아버지와 여동생 막순이와 흥남 부두에서 헤어지고 어머니와 막내 끝순이와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어린 덕수는 '국제시장 장사치'로 살아가 고, 생사조차 모르는 북의 아버지와 누이동생이 그리워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을 보며 눈물







흘리고, 아버지와 약속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구두 통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덕수에게 역사는 고통과 시련이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기회이기도 했다. 어쩔 수없는 선택일망정 그는 역사의 한 자락을 끌고 갔다. 그렇게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덕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다."고. 비록 분단으로 끝내다시 만나지 못했고, 덕수의 삶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 것이다. 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덕수는 자식들은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 것이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세월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 이게 부모다. 그 시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은 높고 낮음을 떠나 덕수였다. 흥남부두에서 막 순이를 놓치고 나서 절규하는 어린 덕수, 독일 탄 광 매몰로 생사를 헤매는 덕수에게 용기와 사랑의 힘을 보여 준 영자(김윤진),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서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막순이를 본 1,000만은 바 로 그들이 '나'이고, 나의 '누이'이고, '어머니 아버 지'이며, '삼촌'이고, '할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국제시장〉이 이렇게 우리를 '추억'으로 데려다 놓으면서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역사 다시보여 주기는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국제시장〉은다큐멘터리가 아니다. 내 가족의 지난 삶의 기억과 경험이 담긴 일기장이자, 사진첩이다. 영화가되돌려놓은 아버지의 '과거'를 만나면서 자식들은

'현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 또한 유행가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이지만, 〈국 제시장〉이 잠시나마 세대 간 '소통의 길'을 조금이 나마 열어 준 것만은 분명하다. 허구에 불과한 영 화가 때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영화의 힘이다.

소통은 '공감'에서 출발한다. 공감은 감정이입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타인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웃음을 자아내는 자잘한 에피소드들, 아득한 기억까지 불러내는 소품의 섬세한 배치, 시대의 아이콘(대중 스타들)을 덕수와 장난스럽게 조우시키는 연출의 리듬과 재치도 결국 관객의 마음을 열어 영화와의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었다.

개인의 삶도 그렇듯 역사도 늘 심각하고, 거 대하지 않다. 작은 돌, 깨진 그릇조각, 마당 앞의 나무, 아버지의 깊은 주름살 하나에도 역사는 스 며 있다. 단지 무심코 지나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



성화에 얽힌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르비에토 대성당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실용미술과 교수

성체에서 흐른 성혈이 묻는 수건

1263년 어느날, 프라하 출신 사제 베드로가 로마로 순례여행을 가던 중 이탈리아 중부의 볼세나라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이 사제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다. 그러자 성체에서 피가 흐르기시작하더니 제대를 적시는 게 아닌가!

교황 우르바노 4세의 명으로 성체는 즉시 오르비에토로 옮겨졌고, 성체에서 흐른 성혈이 묻은 린넨 수건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온 세계에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리기 위하여 1290년 11월 13일, 교황 니콜라우스 4세는 첫 삽을 떴고 이로써 승천하는 성모님께 봉헌된 오르비에토 성당이 건립되었다. 건립 기간은 1290년부터 1607년까지였으니 무려 300년이 걸렸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르비에토 성당이 탄생한 것이다. 성혈이 묻은 성스러운 천은 오늘날까지 이곳에 보존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의 공경을 받고 있다.

성체에 흐른 피가 묻은 린넨 천은 성체경당(Cappella Coroporale)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지금도 옅게 성혈 자국을 볼 수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2월 말, 출장 중에 잠시 짬을 내어 오르비에토에 갔다. 사실 30여 년 전 유학 시절 이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저 큰 성당이었다는 것 외에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이번에는 오르비에토가 세계 최초 슬로 시티(Slow City)라기에 들른 것이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고, 자연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고, 인간의 노동과 정이 배어 있는 장인들이 만든 물건으로 가득한 도시라니, 각박한 생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성공 정도가 아니라 크나큰 은총을 받았다. 30년 전에는 이탈리아 말도 잘 못하고, 미술도 알지 못하니 여기까지 와서도 성당이 참 크다는 사실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는데 이 성당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이 성당의 보배인 성체에 흐른 피가 묻은 린넨 천은 성체경당(Cappella Coroporale) 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지금도 옅게 성혈 자국을 볼 수 있으니 놀랍기만 하다.



오르비에토 대성당

60 61 평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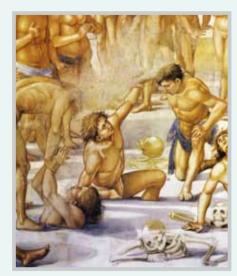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오르비에토 성당은 미술사를 전공하는 나를 흥분시켰는데 이 성당 내부의 브리지초 경당에 그려진 루카 시뇨렐리(Luca Signorelli)의 프레스코 벽화와 대성당 정면에 조각된 구약과 신약을 주제로 한 부조 때문이었다. 벽화는 루카 시뇨렐 리가 1500~1504년에 그렸고부조는 이보다 200년 가까이 앞선 1320~1330년에 제작되었다.

베끼면 표절. 훔치면 걸작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만큼 보이기도 한다. 모든 지식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나는 작년부터 미켈란젤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아마 미켈란젤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 온 테마일 것이다. 거기에 뭔가 새 로운 것 하나를 보탠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런데 나는 이 오르비에토 성당에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자신의 평생의 걸작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인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와 벽화 최후의 심판 을 탄생시켰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두 작가는 동일한 주제, 즉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그렸다. 그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하단 왼쪽에는 최후의 심판의 날 죽은 이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 땅 속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다. 바로 시뇨렐리의 그림에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이미 살이 붙어 인간의 모습을 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해골상태인 영혼도 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영혼들은 물론 시뇨렐리의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자재의 나체로 그려졌지만 시뇨렐리의 오르비에 토 벽화 없이 생각할 수 없다.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술작품이란 앞선 이의 것을 훔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니 선배의 것에 자신의 것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은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미술작품 탄생의 필수코스다. 단 어설프게베끼면 표절이 되지만 완벽하게 훔치면 걸작이 된다. 위대한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디테일한 분석은 나의 연구에서 자세히 소개할 생각이다.



루카 시뇨렐리, 최후의 심판: 잠에서 깨어나는 영혼들(부분), 1500-1504, 오르비에토 대성당



루카 시뇨렐리, 최후의 심판: 지옥의 영혼들(부분), 1500-1504, 오르비에토 대성당



로마서 특강

하느님의 복음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 성경삶연구소 대표





복음의 힘과 하느님의 진노

로마서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로마서 통독 안내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중요한 바오로의 신학 주제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신학 주제의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로마서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이 처음 로마서를 읽을때에는 로마서를 큰 항목별로 구분하여 읽는 것이도움이 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로마 1-4; 5-8; 9-11과 12-15장으로 나누어 읽고 이 안에서도 더세부적인 항목들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떻게 다른 항목들과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로마서전체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읽으시면서 항상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입문(1,1-17)

로마서 입문 단락은 바오로의 모든 서간들 가운데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장엄합니다. 다른 서간들처럼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오지만 로마서만의 독창성도 있는데, 소개(1,1-7), 감사(1,8-15), 주제(1,16-17)로 구분됩니다.

바오로는 로마서에서는 다른 서간과는 달리 협력자를 공동 발신인으로 함께 소개하지 않고 자 신의 이름 '바오로'만을 이 서간 집필자로 소개합 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의 복음' 임을 처음부터 밝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의 구성〉

- 소개 1,1-7
- 감사 1,8-15
- 로마서의 대주제: 1,16-17
- 대주제 증명
- (A) 1,18-4,25 오직 신앙으로 의화되는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 (B) 5-8 세례받은 이의 새로운 삶과 희망
- (C) 9-11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의 미래
- 권고 12.1-15.13
- 에필로그 15,14-21
- 소식과 안부 인사 15.22-33; 16.1-27



바오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 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세 개의 칭호로 소개합니다(1,1). '종'이 그리스도 에 대한 바오로의 자세를 가리킨다면, '사도'는 사 람들에 대한 바오로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 습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복음'이라는 로마서의 주 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로마신자

62 63 평신도

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 감사드리고. 자신의 로마 여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 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 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 는 길이 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로마 1.9-10). 바오로가 넓은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곳 동체들을 창립하기 위해 여행을 많이 했지만 항상 자신의 선교 계획은 하느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견된 사도로서 파 견하신 분.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 고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는 항상 "하느님께서 길 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면 떠나고 길이 막히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가 제 일 먼저 쓴 테살로니카 전서에서도 바오로의 같은 태도(참조, 1테살 3.11)를 볼 수 있는데 생애 마지막 무렵에 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로가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하느님 아드 님의 복음', 하느님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며 그 아드님이 인류에게 가져다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 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신자로 만 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로의 마음 안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형성한 로마 신 자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전파해 온 '그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여 그들의 신 앙을 성장시키고 자신도 힘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신자들이 하느님의 복음,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1,4)으로 책봉되신 분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하느님의 아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성 바오로 ◆ 성 바오로의 사슬

로마서 주제(1,16-17)

1,8-15의 감사대목에 이어서 1,16-17에서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바오로는 로마 에 전하려는 복음의 의미와 핵심을 처음부터 정확 하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로마서의 핵심 용어들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복음, 하느님의 힘, 구원, 믿 음, 믿다, 계시하다, 의로움, 살다."

우리는 지금 바오로의 용어들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용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모두 중 요하고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길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참조.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데(참조. 2-4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개방하는 모든 인간에게 도달한다." 바오로는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은 영광으로 둘러싸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다인들에게는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들의 존엄한 지성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죽음은 아무 가치도 없고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에게 복음은 '하느님의 힘'이며 코린토 후서 13.4에서 증언하듯이 생명의 선포입 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 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 아 계십니다." 오로지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고 그 것을 살아내는 삶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 음의 수신자는 먼저 유다인들이고 그다음이 그리 스인들(=이방인들)인데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이 표 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 하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 버지와 그분의 사랑, 그분이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방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 서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오고. 그분에 대한 믿음 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 계 토대는 인간이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하 느님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느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며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런 '하느님의 복음'이 다이너마이 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힘'이라고 소개합니다. 복 음은 단순히 듣고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비 전을 갖게 하며 새 인간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복음의 힘을 로마 신자들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느님의 의로움'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용어도 나오는데 로마서의 첫 대목인 1-4장의 핵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오로가 1,16-17절에서 선포하는 로마서의 주제는 앞으로 이어지는 11개의 장(1,18-11,36)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1.18-3.20)

1.16-17에서 장엄하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바 오로는 갑자기 1.18에서 어조를 바꾸어 '하느님의 진노'에 대해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 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1.18) 인 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3.20까지 길 게 이어집니다. 독자들이 로마서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서간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은 로마서 첫머리에 해당하는 1.18-3.20을 읽으면서부터입 니다. 독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바오로는 1.16-17에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독자가 기대하는 하느님 자비가 아니라 하느님 진 노에 대해 길게 다루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일 까? 이 항목에 나오는 내용은 평소에 바오로가 가 르치는 내용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1.18-3.20의 내 용은 바오로가 당대 유다인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을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염 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오로는 당대 사람들의 기 대와 사고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

64 65 평신도



아가다의 음악편지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Regina caeli, laetare, Alleluia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봄, 부활, 그리고 성모님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 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해인 수녀님의 시〈봄과 같은 사람〉에 열거된 '봄과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구절을 읽어 가면서 저는 성모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모님은 계절로 치면 아마 '봄'과 같은 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봄'호에서는 아름다운 성모님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성모님의 음악'이라고 하면 '아베 마리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구노, 슈베르트, 브루크너, 블라디미르 바빌로프 등 여러 시대 수많은 작곡가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송'이라고 부르는 라틴 어 기도문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노래 '아베 마리아'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노래들은 종교를 떠나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클래식 명곡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가톨릭교회의 유구한 전통 안에는 '아베 마리아' 외에도 성모님께 바치는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성모성월에 특히 자주 바치게 되는 성모의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기도문 역시 여러 작곡가에 의해 '마니피캇' (Magnificat)이란 제목의 음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루터교 신자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마니피캇〉을 작곡했을 정도니까요.

또한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성모찬송 역시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함께 바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원래는 수도원에서 바치는 시간전례 끝기도의 마지막 순서였던 이 기도문 역시 페르골레지, 핸델, 리스트 등 여러 작곡가에 의해 '살베 레지나'(Salve Regina)라는 제목의 음악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봄, 그리고 부활을 맞아 가장 힘주어 소개해 드리는 성모님의 노래는 바로 부활대축일부터 성령강림대축일까지 바치는 부활 삼종기도의 모태가 되는 '레지나 챌리'(Regina caeli)입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Regina caeli, laetare, alleluia Quia quem meruisti potar, alleluia Resurrexit, sicut dixit, alleluia Ora pro nobis Deum, alleluia

예수님의 부활을 성모님과 함께 기뻐하며 바치는 이 기도문은 본래 '살 베 레지나'처럼 시간전례 끝기도를 마친 후 부르는 성모님 찬가의 일종인데 요. 원 기도문은 '하늘의 여왕이시여'라는 뜻의 라틴어 '레지나 챌리'(Regina caeli)로 시작하는데. 이 기도문이 만들어진 것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고 하네요. 네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 행이 알렐루야를 힘차게 환호하 며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인 '레지나 챌리'는 그레고리오 성가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교회 음악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 다. 특히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레지나 첼리'라는 제 목으로 작품을 세 개나 남겼는데요(K,108, K, 127, K, 276), 그 가운데 모차 르트가 15세에 쓴, 그의 첫 번째 '레지나 첼리' K.108은 네 개의 짧은 악장으 로 구성된 소박한 작품이지만, 그 안에서 소프라노 독창과 합창을 통해 부 활의 기쁨과 신비, 성모님을 향한 찬미와 청원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 니다. 이번 봄은 이 곡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또 다른 레지나 첼리 K. 127과 K.276도 두루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령강림대축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부활 시기에 음악을 통해 기도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 성모님의 자애와 사 랑을 더욱 풍요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

66 67 평신도



평신도 양서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안셀름 그륀 지음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140x205, 224면, 11,000원

사랑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독일의 영성가 안셀름 그륀 신부 가 전하는 남녀의 사랑법, 남녀 의 사랑은 더없는 행복에까지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일상이란 이름의 땅 위에서 실천 하려면 자양분과 보살핌이 필요 하다. 수많은 이들의 영적 여정 에 동행해 온 그륀 신부는 자칫 사랑의 행복이 처할 수 있는 위 험을 잘 알고 있다. 그 위험에 대 처하는 길을 바로 영성이 알려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성은 거듭된 의식과 수련을 통해 서로 를 굳게 신뢰하며 관계를 맺어 가고, 두 사람이 다 함께 성장하 게 해 주는 힘이다.



양승국 지음 생활성서사 국판변형, 264면, 13,000원

양승국 신부의 친절한 기도레슨

이 책은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 게 기도해야 하며,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쉽고 친절하게 들려줌으로써 평 소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준다. 가난한 청소년들과 함께하 며 뉴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일상 을 보내는 저자의 이야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구 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도에는 왕도 나 지름길이 없음을, 그리고 매 일 한 걸음씩 오르막 계단을 오 르듯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클라우스 디크 외 지음 가톨릭출판사 117×180, 112면, 5,000원

YOUCAT 고해성사

이 책은 신자들에게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을 털어주고 보다 친근하게 느끼도록 안내한다. 이를위해 주로 고해성사의 방법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다른 교리서와 달리, 여러 신자와 사제들의경험담, 그리고 비유들을 통해신자들은 이야기책을 보듯이 재미있게 고해성사의 의미, 방법, 기도, 마음가짐 등을 총체적으로배우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있다. 고해성사가 하느님이 주신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이 책을 읽으면 가벼워진 마음으로 화해의 성사를 청하게 될 것이다.

68



성바오로수도회 글 · 사진 성바오로 148×210, 272면, 11,500원

수도원 일기

수도원일기는 청빈, 정결, 순명 의 예수님 삶을 따르며, 하느님 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의 위 로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며 끊 임없는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 가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온 청년 들이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매일 의 삶의 흔적들이 적혀 있다. 맑 고 밝게 그리고 정갈하게 그려내 는 소소한 일상에서는 갑자기 하 늘이 열리거나 벼락이 내려꽂히 듯 성령이 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작은 풀잎에서, 해지는 들녘에서 잔잔히 다가오는 그분 의 숨결을 느끼는 모습이 고스란 히 담겨 있다.



토마스 그룸 지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40×220, 508면, 22,000원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는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그름은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가톨릭신학자이자 종교교육학자이다. 저자는 35년 동안의 교육체험을 토대로 이 시대 상황에 효과적이면서도 부모와 교사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을 소개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신앙 교육 접근은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지음 임정희 옮김, 바오로딸 128×188, 228면, 6,000원

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 - 풍요로운 삶

사순절 묵상서, 전개되는 엘리야 이야기는 요구와 도전, 홀로 있 음과 관계, 승리와 패배, 열정과 소진을 다룬다. 또 내어 맡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느님과 한 인간의 이야기며, 한 인간과 하느님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상을 중단하 고, 내 인생을 새로 돌아보고, 전 망과 비전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현실로 바꿔 나 가는 초대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탈진한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길을 가는지 보여 준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31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사랑부문 정희일 씨. 정의평화 부문 오창익 씨 수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 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손희송 신 부,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해 12월 서른한 돌을 맞는 가톨릭대상 수상 자로 사랑부문에 정희일 씨(90세) 와 정의평화부문에 오창익 씨(47세) 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한국평협이 지난 1982년부터 신 뢰회복운동과 함께 제정한 가톨릭 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 신 봉사해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 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사랑, 문 화. 정의평화 부문으로 나누어 종 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사랑 부문 대상을 수상하 게 된 정희일 씨는 지난 1986년부 터 영등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봉사를 시작

하여 90세가 된 지금까지 28년 동

안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해 왔 고. 이런 모습이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는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선정의 이유가

또한 정의평화 부문의 오창 익 씨는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해 왔으며 특히 지 난 1999년부터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활동가들과 힘을 모아 인권실 천 시민연대(인권연대)를 설립하 여 각종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 여 적극 활동함은 물론 인권교육 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시상식은 12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렸으 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가 함께 자리했다.

● 2015년도 제48차 한국평협 정기총회 개최

새로운 복음화와 아시아 교회 연대를 위한 사업에 앞장 서기로



한국평협은 지난 2월 1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8차 정기 총회를 열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 한 사업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 동을 전개하고 아시아 교회 연대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의 사업 을 열기로 의결했다.

개막미사에서 한국평협 담당사 제인 손희송 신부는 "경제개발 등 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면서도 감 사하는 마음은 줄고 있다. 예수님 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셨다."며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재능을 나누면 선 교는 잘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역할 을 하고 있다. 진정한 평신도 지도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야 하고 그 영광은 예수님께 올 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며 한국 평협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부터 깊이 성찰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상임위원 임기 를 마친 대전교구 평단협 이명수 회 장과 마리아사업회 김석인 신부와 문원주 대표에게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 경 명의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한 감사직을 사임한 김춘배 춘천 평협 회장을 대신해 의정부평협 문 호 회장이 감사로 선출됐고. 김연 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부 회장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 신년하례신

서울평협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와 평신도 영성 교육 강화키로 -





서울대교구 사도직단체와 교구 장과의 만남의 자리인 신년하례식 이 지난 1월 10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대교구 평 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 중. 담당사제 손희송. 이하 서울평 협)와 사목국 단체사목부(담당 이 정준 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교구 인준 47개 단 체의 단체장과 임원, 평협 임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2015년 사목 교서에 대해 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신부의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교 구장의 사목방침을 이해하고 사도 직활동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된 시 간이었다고 말했다. 점심식사 후 에는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무지카사크라 합창단, 서울 미 바회. 연령회연합회는 각각의 단 체 소개와 함께 활동에 대해 보고 하고, 단체사도직을 통한 활동으 로 체험한 하느님을 참가자들에게 나눴다.

신년하례와 서울평협 정기총 회 기념미사를 겸한 자리에서 서 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 을 통해 "교회는 공동체이다. 교회 가 친교를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 니라 하나의 소명이다. 가정과 사 회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고 하느 님 뜻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미사 가 끝난 후 서울평협 회원단체와 임원들은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1호 안건인 2014년 사업보고 와 결산 승인, 2호 안건인 201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은 이의 없이 통과했다. 그동안 공의 회학교로 진행되어 온 제2차 바티 칸공의회 문헌 교육은 평신도사도 직 아카데미로 확대되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 이며, 국민캠페인 전개를 통해 그 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회복과 사 회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선 다. 또한 평화 네트워크 활동을 위 해 새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변진흥 야고보 형제를 임명하여 통일사도직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평신도사도직 아카데미 공의회과정 개설

서울평협은 지난 2007년부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정 신을 잘 앎으로써 교회와 사회 안 에서 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 도록 양성하기 위하여 제2차 바티 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공의 회과정'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 '평신도 사도직 아카데 미'로 확대 개편하여 오는 3월 9일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4주 간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상반 기 공의회과정을 실시한다. 강사는 조규만 주교, 정순택 주교, 손희송 신부, 정의철 신부, 박준양 신부 등 신학교 교수진과 권길중 평협 회 장. 한흥순 전 바티칸 대사 등 한국 교회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참여



지난 연말 학익동 본당에서 인 천교구 총대리 정신철 주교와 청 년들(5지구)150여 명, 평신도사도 직협의회(회장 정기회, 담당사제 안규태, 이하 인천평협)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랑의 불꽃 연탄 나 눔' 행사를 3개 조로 나눠 가구당 15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2015년 1월 2일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주례로 세계평화 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최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하 느님이 주신 새해에 감사하고 양 처럼 착하게 살기 바라며, 하느님 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고 사랑 을 주고받으며 영육 간의 건강하 기를 기원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 도하고 대화하며 봉사하는 성가정 이 되기 바란다."라고 축복했다.

이어서 교구청 4층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학생, 교구 단위단체장 및 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신 년교례회를 했다.

인천교구 M.E 베트남 성지순례



201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천 ME(담당사제 오병수) 부부 20여 명이 베트남 성지 순례를 다 녀왔다. 지난해 ME가족모임행사를 준비하며 인천 ME부부들이 함께 준비한 성금을 모아 베트남 가톨릭 공동체 베트남 후에대교구와 대신학교에 후원금을 각각 전달되었다. 대신학교 피우학장 신부는 "인천교구에서 관심을 보여 주어감사하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교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후원금은 사제 양성을 하는 신학교를 위해 쓰일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남북통일 기원미사

1월 3일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2015년 첫 번째 '남북통일 기원미 사'가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 로 봉헌되었다.

최기산 주교는 "을미년(乙未年) 청양띠 해를 맞아 주님을 향해 마 음을 열고 주님과 상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듣고, 기도 (대화)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이 화합하기 만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계속 기도로 써 마음을 모으며, 북한 백성들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5 상반기 총회장 연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이래수, 담당사제 문희종, 이하 수원평협)는 1월 31일 교구 청에서 총회장 및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수 에 이어 2회째 「소통」이란 주제로 '2015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1부 대리구별 소통사례발표에서 는 6개 대리구에서 우수본당으로 뽑힌 총회장들이 소통사례를 발표 해 참석한 총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소통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2부에선 교구 복음화국장 이근 덕 신부가 「교구 50주년 비전 행심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구 미래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밝혀 주었으며 3부 파견미사에

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우리는 성당에 다니는 것만을 신앙생활이 라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소통이란 아름다운 친교"라고 말씀하시며 친교를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수원평협에서는 각 본당의 사정을 교구장께 알리고, 교구장의 복음화 정책을 본당 총회장에게 들려주는 장으로 매년 상, 하반기 교구장 주교와 총회장의 만남 및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축구선교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는 지 난해 12월 6일 교구청에서 2014년 도 제1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 회는 교구 및 각 대리구 축구선교 연합회 회장 · 부회장 · 감사 등 임 원 17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를 '사무국' 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건을 통과 시켰다.

윤용현 회장은 "각 대리구 연합 회와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화합 을 이루면서 축구영성을 키우는 데 매진하겠다."며 "또한 말씀을 생활화하고 선교를 실천하는 공동 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 사진가회 사진교실 제13기 수료식



수원교구 사진가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원대리구 원천동성당 지하 강당에서 사진교실 제13기 수 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료식에 는 수료자 32명과 사진교실 봉사자 및 사진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천지의 모후 레지아 신년하례 미사 봉헌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는 1월 4일 주님 공헌 대축일 날 교구청에 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 집전으로 꼬미시움 간부,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미사를 봉헌했다.

이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2015년 을미년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661차 월례회의를 주관한 이근덕 신부는 "레지오 단원으로 서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성 모님께서 보여 주셨던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자애로운 모습, 가난한 이들을 헤아리는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ME 수원협의회 지구 및 본당 대표 교육 실시



수원ME는 1월 17일 교구청 지하 강당에서 지구 및 본당 대표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35주년 행사 및 미션 수행 홍보, 마재 성가정 시연, 분과 소개 및 소개 대요 작성법과 대리구별 그룹 나눔 순으로 진행 됐으며,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 로 파견미사가 봉헌됐다. 이 주교 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ME 부부 는 세상 문화에 물들어 힘들어하 는 부부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새로운 문화(그리스 도교)로 초대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성령쇄신봉사회 '2015 신년 미사' 및 밤샘기도회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신년 미사'가 1월 23일 오후 11시 하우현 성당 성령기도의 집에서 400여 명 의 신자들이 참례한 가운데 교구 장 이용후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신년미사 후에는 묵주기도를 시 작으로 하찬사(하느님을 찬양하 는 사람들, 단장 김성철 프란치스 코)와 함께하는 찬양과 찬양선교 사 고영민 형제(삼성산 사랑의 성 령쇄신봉사회 부회장)의 특강으로 이어지는 '밤샘기도회'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 주교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된 을미사변 제120주년인 2015년을 마년을 맞았다"며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 제40차 꾸르실료 정기총회



제40차 수원교구 꾸르실료 정 기총회가 2월 1일 교구 내 각 대리 구·지구·본당 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영성관에서 있었다.

총회는 1부 영성지도 우종민 신부의 시작기도와 환영사, 성직자 강의, 2부 총회, 3부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 신부는 "내 마음속의 아집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인식하고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끊 임없이 기도하면서 진정 그리스도 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삶을 살고 있 는지 뒤돌아보고, 참 소통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40차 총회에서 제11대 주간 으로 안녕본당 위계평 형제가 임 명됐다.

천지의 모후 레지아 청년단원 기본단계 피정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양대리구청에 서 청년 단원 105명이 참석한 가운 데 기본단계 피정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단원들을 위해, '서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각자의 감정 조절을 충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신앙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수원교구 찬양사도협의회(이제용 나타나엘 회장)가 진행하는 찬양 등 청년 단원 맞춤식 교육, 강의, 찬양미사, 단원교육 등으로 피정이 구성됐다.

• 사진가회 피정



수원교구 사진가회는 2월 14일 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수지성모 교육원에서 44명의 회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회원피정을 실시했다

피정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를 주제로, 김 마리릿다 수녀의 진행과 강의, 그 리고 사진가회 월례회의와 파견미 사로 이루어졌다

김우정 신부는 미사강론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청한 나병환 자처럼 용기를 내서 다가갈 때 하 느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 가를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인회 '설맞이 기금 전달식'



수원교구 경제인회는 2월 13일 교구청에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설날의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주사목위원회와 교정사목위원회에 각 100만원씩 '설맞이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박래준 회장을 비롯 해 이래수 고문, 신종인 수석부회 장, 최용휴 부회장이 함께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정기총회 개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

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 담당사 제 강신모)는 지난 12월 17일 교구 청 3층 회의실에서 2014년정기총 회를 열었다.

성령쇄신봉사회 등 교구 17개 단체장을 비롯해 각 단체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의(4월10~11일) 개최와 의정부교구 사도직단체 핵심봉사자 피정(7월 4~5일)등 201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교구 설정 10년 만에 평단협의 탄생은 교구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며 "교구 발전은 물론 사 제들이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단체 신년하례식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 의회(회장 문호, 담당사제 강신모) 는 지난 1월 8일 오후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교구 평단협 회장단과 17개 단체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 하 례식에서 성령쇄신봉사회, 꾸르실료, ME, 축구단 연합회, 빈첸시오아 바오회, 다락방기도회, 가톨릭국악합창단 등 7개 단체장들이 교구장 이기헌 주교로부터 단체장임명장을 받았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단협 임원 무료급식소 일일 배식 봉사활동 참여키로



대구대교구 평단협(회장 박해 룡, 담당사제 박영일, 이하 대구평 단협)은 2015년 교구장 사목교서에 서 강조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 는 교회'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 해 들어 매월 첫 토요일마다 대구 역 부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요 셉의 집'에서 일일 배식 봉사활동 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정기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 1989년 문을 연 요셉의 집은 교구 사회복지시 설로 예수성심시녀회가 운영을 시 작한 이래 하루 800여 명의 노숙인 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방문하 고 있으며 배식은 오전 10시 10분 부터 오후 1시까지로 주5일 무료급 식을 실시하고 있다.

• 상임위원 월례회의 개최



대구평단협은 2월 4일 저녁 상임위원 월례회의를 가진 후 설날을 앞두고 상임위원들의 친선과화합을 다지는 윷놀이를 했다.

● "소외된 이들 돕기"



대구평단협과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이호성, 담당사제 박영일)는 2014년 12월 19일 상임위원 부부동반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소외된 이들 돕기'를 위해 모금한 286만원의 성금을 12월 28일 무료급식소 요셉의 집에 전달했다.

가톨릭미술가회 100주년 기념 주교좌범어대성당 성전건립 기금 전달

대구대교구 가톨릭미술가회(회장 고수영, 담당사제 김도율)는 2014년 12월 10일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에게 100주년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성전건립기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창립 40주

74 75 평신도

년 기념 및 100주년 기념 주교좌범 어대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2014 사랑의 성전' 특별전(1974~2014)의 전시수익금이다.



전례꽃꽂이 연구회 제5회 수료 작품전



전례꽃꽂이연구회(회장 최연순, 담당사제 박상용)의 제대꽃꽂이 봉 사자를 위한 꽃꽂이 강좌반 제5회 수료 작품전이 2014년 12월 19일 축하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교구 청 별관 1층 대회합실에서 열렸다.

가톨릭 미용인회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나눔콘서트'



대구교구 가톨릭미용인회(회장 김순희, 담당사제 허용)는 12월 2일 대구 남구 대명남로에서 '다문화가 족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를 열 고 수익금을 카리타스 무지개사업 단에 기부했다. 대구지역 가톨릭 성악인 '마중물 싱어즈'의 재능기 부로 이루어진 이날 콘서트를 위해 미용인회 회원들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후원금 을 마련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무료급식봉사



2014년 12월 14일 자선주일 부산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와 장재 봉 선교사목국장 신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하창식, 이하 부산평협) 상임위원들은 부산교구 신자들과 함께 무료 급식 봉사에 일손을 보탰다.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김 영환 신부) 산하 단체인 신빈회(회 장 이철우)는 매주 일요일(하절기 오후 5시, 동절기 오후 4시 30분) 부산진역 앞에서 450여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 2015년 부산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2015년 2월 1일 양산 정하상바 오로영성관에서 부산교구 내 본 당 회장. 제단체장 23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15년 회장단 연수' 를 열었다. 이날 연수는 2015년 부 산교구 사목지침 설명 및 문화 복 음화의 해 특강, 부산교구·울산 대리구 평협 정기총회와 부산교구 내 '1~12지구와 제단체장 그룹별 토의'가 있었으며 부산교구 총대 리 손삼석 주교 특강이 있었다 손 주교는 특강 중에 "〈문화 복음화의 해〉에 복음 전달자, 은총의 전달자 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파견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황철 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매일 정신과 마음 을 올바로 방향지우고. 정화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평협 제17호 발간



2015년 2월 1일(일) 부산 평협은 소식지 「부산평협지 제 17호」를 발간하 여 양산 정하

상바오로영성관에서 2015년 부산 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때 2000권을 제작하여 이날 각 본당에 배부했다.

● 2014 선교, 교리교사, 사랑봉사상 시상식



2015년 2월 1일, 양산 정하상바 오로영성관에서 개최된 2015년 부 산교구 회장단 및 제단체장 연수 파견미사 때, 부산평협이 주관하여 해마다 각 본당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선교상(개인, 본당, 단체), 평 신도 교리교사상(30년, 10년, 5년), 사랑봉사상(개인, 단체) 시상식을 가졌다.

이정식(요한)과 양재현(마르티 노)의 시성과 김범우(토마스) 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평협은 지난해 8월 16일 프 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순교자 124위 시복이 이뤄진 후, 이들 시복자, 특 히 부산교구의 복자인 이정식(요 한)과 양재현(마르티노)의 시성을 기원하고, 새롭게 청원된 순교자 김범우(토마스)의 시복을 위해서 도보성지순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5일 제

1차로 오전 9시 삼랑진역에서부터 김범우 순교자 묘소까지 2시간을 도보성지순례하고, 성모동굴성당에서 파견미사를 드렸으며, 이후제2차로 2014년 11월 29일, 제3차로 2014년 12월 20일, 4차로 2015년 1월 31일 부산평협 임원들의 시범 도보성지순례가 있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28일, 부산교구 전 교우들과 함께하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도보성지순례의 대장정을 새롭게 시작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39사단 군장병 신자 짜장면 나눔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덕곤, 담당사제 강영구, 이하 마 산평협)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 39사단 내 충성성당에서 군장병들 을 위한 짜장면 나누기 행사를 실 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중미사 후 군장병 신자 및 예비신자, 훈련병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장 병들은 평협 임원 및 푸른군대 회 원들이 준비한 짜장면과 우동, 우 유 등을 맛있게 먹었다. 김덕곤 회 장은 "군장병들을 위한 선교활동 을 통하여 군대가 교회의 새로운 희망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군대는 선교를 위한 교리교 사 양성과 봉사활동 등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므로 신 자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45차 정기총회



마산평협은 1월 31일(토)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185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45차 정기총회와 복음화운동 경축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기념식(사도 직활동지침서 발표)과 특강(배기 현 총대리신부), 제2부 지구별 그 룹토의와 제45차 정기총회, 제3부 복음화운동 경축대회 시상식과 파 견미사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 행했다.

김덕곤 회장은 교구평신도사도 직활동지침서의 발표에서 평신도 운동의 방향을 교구설정 50주년에 맞추어 사업과 활동을 실천할 것 을 요청하였으며, 지구별 그룹토 의를 통하여 사도직지침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다양한 평신 도의 소리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

정기총회는 지난 2014년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 특별히 복자 탄생 5위 경축대회의 특별행사에 대한 결산을 보고했으며 총회를

76 77 평신도

마치며 '평신도의 선언'인 우리의 다짐을 참석한 전 위원들이 봉헌 하며 총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 여성협의회 4분기 상임위원회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연숙, 담당사제 강영구) 2014년 4분기 상임위원회가 12월 9일 창원 사파공동성당에서 열렸다. 교구 여성협의회 44주년 기념 책자 발간에 관한 보고와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았던 각 지구 연회비 인상, 그리고 2015년 1월 13일에 있을 제41차 정기총회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교구 여성협의회 44주년 기념 책자는 2015년 1월 13일에 있을 정기총회 때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각 지구 연회비는 연간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성협의회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이갑 순, 담당사제 배기현)는 1월 14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4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 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음악회 와 총회, 그리고 파견 미사로 진행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담당 사제 인 배기현 신부(교구 총대리)의 부 임 인사와 임기 4년을 마친 김연숙 회장(월영본당)의 이임 인사,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이갑순 회장(칠 암동본당)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3년 단임으로(회칙 제12조) 개정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며,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개정된 회칙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가톨릭문학 출판기념 감사 미사 및 신인상 시상식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회장 김 연희, 담당사제 황인균)는 12월 13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회원 및 가톨릭문학 신인상 수상자와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문학 제16집 〈화해와 평화〉 출판기 념 감사 미사와 제8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실 시했다

이날 신인상 시상식에서는 시 부문 당선 이규준 씨와 가작 김영 미 씨, 수필 부문 당선 이현민 씨에 게 상패와 상금이 주어졌으며,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담당 황인균 신부는 감사미사 중 강론을통해 "문인회원들은 글로써 주님을 찬미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앙을 고취시키는 사명감을 가지고그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톨릭문인회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금마련을 위해 가톨릭문학지를 판매하기로 했다.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에서 구입할수 있다.

• 가톨릭 농민회원 전체연수



가톨릭 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회장 정용우, 담당사제 박창균)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농민회원 전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담당사제 박창균 신부의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연수 내용은 박창균 신부의 '가톨릭 농민운동의 3대원리'에 대한 강의와 정용우 회장의 '분회활동에 대한 성찰'에 관한 강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김성환(회원물품위원장), 백현수(실무자)회원의 '생산 계획서 작성요령 및교구활동보고'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신년하례식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 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 이하 광주평협)는 1월 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 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단위 제 단 체 회장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교구장과 신년하례식을 가 졌다. 먼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 축일 미사를 봉헌했고, 이어 신년 하례식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는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 교구평협(제44차) · 여성위원회 (제11차) 정기총회

광주평협은 1월 24일 광주가톨 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제 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사목회 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담당 사제 우원주 신부의 특강에 이어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5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하고 승인했다. 이날 여성위원회 (위원장 홍순덕)의 제11차 정기총 회도 함께 개최됐다.



예비신자 교리교사회 겨울피정



천주교 광주대교구 예비신자 교 리교사회(회장 이동운, 담당사제 우원주)는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에서 겨울피정을 개최했다.

1월 17~18일, 24~25일, 1월 31일 ~2월 1일 3차에 걸쳐 교구 예비신 자 교리교사 256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교종 프란치스코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란 주제로 국춘 심 방글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수녀회)의 지도로 진행됐다.

한편 3월 1일에는 광주가톨릭평 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정기총 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으며, 이어 실시된 회장 선출에서는 현 이동은 회장을 재선임했다.

● 꾸르실료 울뜨레야 임원연수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사

무국(주간 도상구, 담당사제 박상선)은 1월 10일 삼각동성당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구 꾸르실료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으며, 이어 실시된 주간 선출에서는 현도상구주간을 재선임했다.

한편 1월 24~25일에는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70개 본당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울뜨레야 임원연수회를 개최하고, 예수고난회 정영대 원장 신부의 특강 후 2015년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한국가톨릭 교수혐의회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는 1월 6일 서강대학교에서 담당 박홍 신부와 회장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피정을 3월 28~29일 대전 정하상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특강연사로 서공석 신부, 이판석 신부, 박민서 신부, 이경수 신부를 위촉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 회장 및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78 명신도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2015년 장학금 수여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 회는 2015년 2월 각 교구 시각장애 인선교회를 통해 교구 내 맹학교 졸업생 혹은 안마수련원 수료생 중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총 7명에 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 여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 로 나가는 시각장애 졸업생들을 격 려하고, 비신자인 학생에게는 선교 의 기회로 삼고자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는 2013년 신설된 청주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추천을 받은 청주맹학교 졸업생과 수원교구내 장애인학교인 아름학교 졸업생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더욱 뜻이 깊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 교구회장단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 선 교수)는 2014년 11월 29~30일 아드리아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에서 김평만 대표담당사제 외 전 국 7개 교구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2013년도 회장단회의 회의록 보고, 2014년도 회무 및 재무보고, 2014년도 각 교구의사회 활동보고, 교구별 월례모임, 피정, 봉사활동, 세미나 등 활동 발표, 협회지발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공지사항으로는 2015년 3월 21~2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총회 및 피정,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 실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 현자)는 2월 7~8일, 서울 합정동 마 리스타 교육관에서 '복음의 기쁨을 사는 간호사'라는 주제로 제37회 정 기대의원총회, 제57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을 진행했다. 홍현자 회장 을 비롯한 전국 14개 교구에서 대 의원 118명이 참석했다.

말씀의 전례에 이어 가톨릭대학 교 박준양 신부의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한 특강과 조별 나눔을 통하여 발표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들을 공유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뜻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연수



한국 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 주 관으로 2015년 1월 21~24일 교육자 의 사명 쇄신이란 주제 아래 25명 의 가톨릭 학교 특수, 초·중·고 등학교의 신자 교사들이 인천교구 50주년기념 영성센터(갑곶순교성 지)에서 피정을 겸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 피정은 한국 가톨릭 학 교의 신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 사로서의 사명의식을 일깨우며, 신앙 쇄신과 성장을 돕기 위해 열 렸다. 피정 연수는 강의, 성찰, 묵 상, 나눔 및 발표, 그리고 교육자로 서의 사명문 작성 등으로 진행되 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모두 직무 연수 30시간이 주어졌다.

해마다 개최되는 가톨릭 학교 신자 교사 연수 가운데 교사와 신 자로서 사명과 신앙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고, 가톨릭 학교의 사 명인 '복음화와 전인교육'을 위해 서로 기도 안에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견미사는 주교회의 교육위원 회 위원장인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가 주례했다.